

2026 APEC 통상장관회의 결과와 평가

이주관 APEC연구컨소시엄사무국 사무국장 (jkleee@kiep.go.kr, 044-414-1089)

곽소영 APEC연구컨소시엄사무국 선임연구원 (sykwak@kiep.go.kr, 044-414-1240)

최태식 APEC연구컨소시엄사무국 연구원 (tschoi@kiep.go.kr, 044-414-1081)

소 희 국제개발연구센터 개발협력정책팀 연구원 (hee.soh@kiep.go.kr, 044-414-1074)

차 례

1. 2026년 APEC 통상장관회의 개최 개요
2. 역대 통상환경과 주요 이슈
3. 통상장관회의 주요 논의 결과
4. 평가와 시사점

주요 내용

- ▶ APEC 통상장관회의는 미-이란 전쟁 발발로 공급망 압력이 고조되는 가운데 상반기 선진·개도 회원경제가 한자리에 모여 통상이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한 첫 회의였음.
- 미-이란 전쟁이 발발하고 제14차 WTO 각료회의(3월)가 큰 성과 없이 종료되면서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중국 쑤저우에서 APEC 회원경제 통상장관들이 모여 글로벌 통상이슈를 논의함.
- 통상장관회의는 「쑤저우 성명」을 통해 WTO, 공급망, 디지털 AI 논의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규 부속서(「혁신적이고 경쟁력 있으며 회복력 있는 서비스를 위한 APEC 로드맵」)를 채택했으며, 다자체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아이디어 인큐베이터’로서 APEC의 역할을 재확인함.
- ▶ 2026년 주요 다자협의체(APEC·OECD·G7·G20) 논의 결과를 비교하면, 각 협의체는 회원 구성과 성격에 따라 의제를 다루는 방식이 다르며, 이 가운데 APEC이 보여주는 포용적이고 실용적인 협력의 특징이 두드러짐.
- 선진국 연대인 G7은 가치연대·안보 결속형, 분석 역량을 갖춘 OECD는 데이터·규범형, 의장국 재량이 큰 G20은 의장국 주도형인 반면, 이질적 회원을 아우르는 APEC은 구속적 규율 경쟁을 피하고 실무 협력과 이행 확산에 집중함.
- 이러한 차이는 성과문서의 문언에서도 확인됨. APEC은 자발·비구속 표현 등장 비율이 가장 많고 구속·대응 표현은 가장 적은 반면, G7은 정반대 분포를 보이며 OECD는 데이터·실증 관련 표현이 주로 등장
- APEC은 WTO·공급망·디지털에서 선진·개도 회원경제가 함께 받아들일 수 있는 공통분모를 제시하는 반면, 산업정책·보조금처럼 선진국 주도의 규율 경쟁 성격이 짙은 의제는 정면으로 다루지 않아 향후 논의 과제로 남음.
- ▶ 한국은 2025년 APEC 의장국 성과를 APEC 내에서 계승하면서 장기적으로 2028년 G20 의장국 수입에 따른 의제와 성과 도출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다자협의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매년 의제가 포럼협의체 간에 연계되고 순환하는 구조를 활용해 APEC에서 실용적·포용적 의제를 발굴하고 OECD에서 분석적 근거와 정책 대안을 마련한 뒤 G7과 G20에서의 논의의 폭과 깊이를 키워 2028년 G20 의제로 수렴시키는 선순환 경로를 고려해야 함.
- 이를 위해 어느 한 포럼협의체의 단기 성과 도출이 아니라, 협의체별 기능 차이를 활용해 다자 논의를 전체 맥락에서 설계·관리하는 접근이 요구됨.
- 한국은 2025년 APEC에서 제시한 AI·인구구조·문화창조산업 의제를 각 협의체의 성격에 맞게 발전시키는 한편, 새로운 통상질서와 향후 경제협력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논의도 다자협의체에서 구체화해 나가야 함.

1. 2026년 APEC 통상장관회의의 개최 개요

■ APEC 통상장관회의는 2026년 상반기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에 대한 우려와 무역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가 교차하는 시점에 개최됨(그림 1-1 참고).

- 미·이란 전쟁 발발(2026. 2. 28.)로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고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며 글로벌 공급망 압력이 가중된 데다 제14차 WTO 각료회의(MC14)가 별다른 성과 없이 종료(2026. 3. 26.~2026. 3. 30.) 되면서 상반기 내내 글로벌 무역에 대한 부정적 기대가 형성되고 있었음.
- 다만 미 연방대법원이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백악관의 관세 조치에 위법 판단을 내리고(2026. 2. 20.),¹⁾ 회의 직전 베이징 미·중 정상회담(2026. 5. 14.)²⁾을 계기로 미·중 간 갈등도 일정 부분 완화되면서 무역정책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통상장관회의를 통한 무역 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도 높아짐.

그림 1-1. 공급망 압력 확대와 무역정책 불확실성의 교차



자료: APEC PSU Regional Trends Analysis, May 2026에서 재인용.

■ 통상장관회의는 2026년 5월 22~23일 중국 쑤저우(苏州)에서 ① 역내 개방적·조화로운 경제통합 촉진, ② WTO 지지 및 다자무역체제 강화, ③ 역동적 디지털 협력 강화, ④ 혁신적 녹색경제 발전 추진을 의제로 개최됨.

- 세션 1(개방적·예측 가능한 무역질서 구축)에서는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 논의 진전, WTO 다자무역체제 강화, 역내 경제통합 및 규범 조화, WTO MC14 성과 이행, WTO 개혁 진전 조치 등을 논의함.
- 세션 2(혁신적·역동적 무역·투자 협력)에서는 디지털 무역·국경 간 전자상거래·AI 분야 국제협력, 국경 간 무역원활화 등 디지털 협력과제와 함께 산업·공급망의 녹색·저탄소 전환, 녹색무역 우호 환경 조성, 녹색·저탄소 제품·기술 교역 확대 등을 논의함.

1) 이천기(2026), 「IEEPA 관세에 관한 미 연방대법원 판결의 주요 쟁점과 후속 관세조치」, 오늘의 세계경제 26-2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 이상훈 외(2026), 「미·중 정상회담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KIEP 세계경제 포커스 26-4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통상장관회의의 결과물로 장관급 공동성명(쑤저우 성명)과 APEC 서비스경쟁력 로드맵의 후속으로 「혁신적이고 경쟁력 있으며 회복력 있는 서비스를 위한 APEC 로드맵」을 채택함.

- [공동성명: 쑤저우 성명] 무역·투자를 중심으로 한 역내 협력 과제와 방향에 대한 합의와 11월 정상회의 논의의 방향과 성과 도출을 위한 노력을 확인·지지하는 내용을 담음.
- [부속서: 혁신적이고 경쟁력 있으며 회복력 있는 서비스를 위한 APEC 로드맵] APEC 서비스경쟁력 로드맵(ASCR, 2016-2025)의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역내 서비스 산업 성장을 위한 신규 로드맵을 APEC 서비스그룹(GOS) 활동을 바탕으로 채택함.

글상자 1-1. 2026 APEC 주제 및 핵심 성과 사업

■ 2026 APEC 중국은 ‘함께 번영하는 아시아태평양 공동체 건설(Building an Asia-Pacific Community to Prosper Together)’을 주제로 개방, 혁신, 협력을 세 가지 우선순위로 선정함.

□ 개방

-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 관련 논의 진전 가속화 및 지역무역협정 간 협력 확대를 제안
 - 2026 APEC 정상회의에서 FTAAP의 진전과 역내 무역 협력을 확대하는 내용의 선진 선언(Shenzen Declaration)을 주요 성과로 발표할 예정
-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 유지 필요성을 강조하며 WTO 개혁을 위한 공동 대응을 강화하고자 함.
- 디지털·물리적·제도적·인적 연결성을 포함한 지역 연결성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함.
 - 디지털 연결성 및 공급망 연결성 강화가 중심이 되는 연계선 청사진(Connectivity Blueprint)의 후속 조치 추진을 제안함.

□ 혁신

- AI 역량 강화, AI 및 디지털 격차 해소와 포용적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함.
- 2025 APEC AI 이니셔티브에 기반해 2026 APEC Digital Weeks 개최를 통해 AI·디지털 기술 협력 플랫폼을 운영할 계획임.
- 디지털 인프라 및 디지털 연결성 확대를 혁신·생산성·경제성장의 핵심 요소로 제시하고 ICT·디지털 기술 활용, 디지털 기술 역량 강화 등의 논의를 추진 중임.
 - APEC Trade Digitalization Cooperation Framework를 추진
- 디지털 및 AI 장관회의(TELMIN 12)를 개최하고 인터넷·디지털경제로드맵(AIDER 2026-2031) 이행 강화를 강조하며 구조개혁 의제(SEAASR 2026-2030)를 통해 혁신·생산성·경제 역동성 강화 추진 예정

□ 협력

- 세계경제 성장 둔화와 글로벌 개발 격차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성장 달성을 위한 공동 협력 강화를 추진 중임.
- 식량안보·에너지 안보·기후변화·실업·인구구조 변화 등 복합 위기에 대한 공동 대응 필요성을 강조함.
 - 식량안보장관회의(FSMM), 에너지장관회의(EMM), 인적자원개발장관회의(HRDMM), 중소기업장관회의(SMEMM), 여성경제협의체(WEF), 재무장관회의(FMM) 등의 고위급 회의를 개최해 분야별 공동 대응을 논의 중임.

2. 역내 통상환경과 주요 이슈

■ 2026년 상반기 국제 협의체에서 논의된 핵심 통상이슈는 공급망, 디지털, 녹색경제로 요약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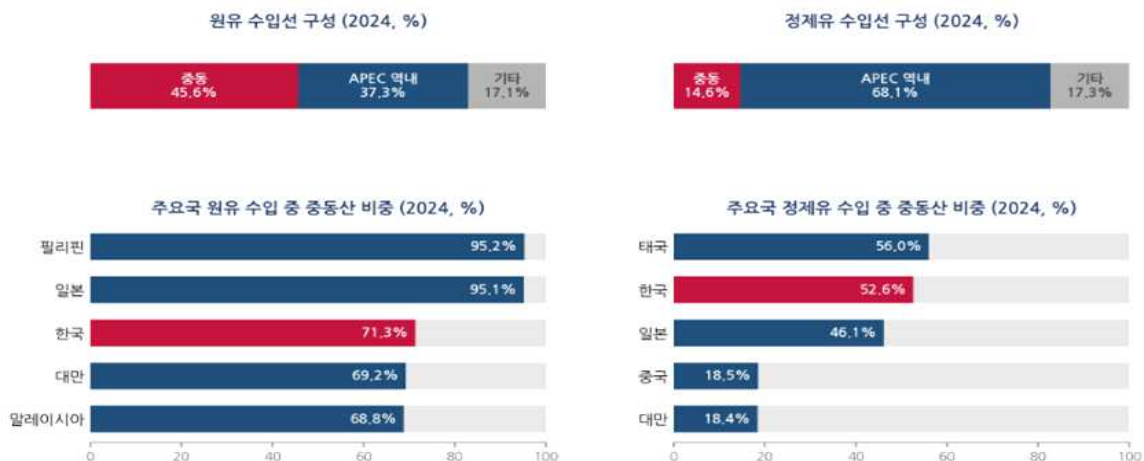
- APEC 통상장관회의도 무역·공급망, 디지털·AI, 녹색경제를 3대 핵심 의제로 선정한바, 본 절에서는 각 의제를 주요 국제 협의체(OECD, G7, G20)에서 그동안 어떤 방식으로 다뤄왔는지 비교함.
 - 2026년 APEC 통상장관회의 및 주요 협의체 성과에 대한 분석은 제3장과 4장에서 다룸.
- 각 협의체의 접근 방식은 회원 구성과 성격에 따라 달라지며, 이를 비교하면 국제 논의의 지형 속에서 APEC이 지닌 특징이 뚜렷하게 드러남.

가. 무역 · 공급망

■ 2026년 미·이란 전쟁에 따른 공급망 교란이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주면서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이 공동 과제로 다시 주목받음.

-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험으로 에너지 안보와 공급망 병목 현상이 통상환경의 핵심 변수로 대두됨.
 - APEC의 원유 수입 중 중동산 비중은 45.6%에 달해 해협 통제 리스크가 에너지 가격 및 교역 운임 상승으로 직결되는 구조임.³⁾
- APEC을 비롯한 주요 협의체에서도 공급망의 회복력을 강화하고 교역로의 개방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함.

그림 2-1. APEC의 원유 · 정제유 중동 의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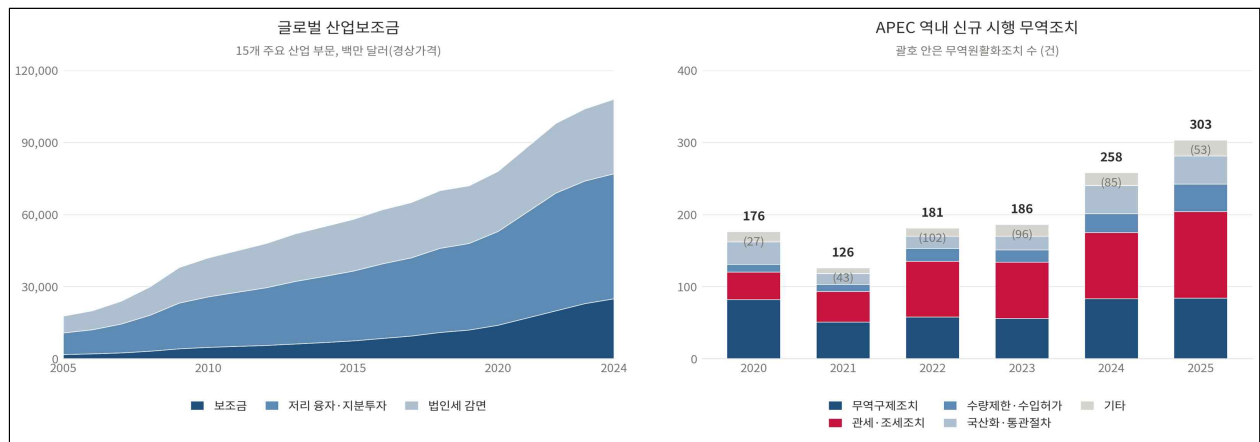
자료: APEC PSU Regional Trends Analysis, May 2026.

3) APEC Policy Support Unit(2026), "APEC PSU Regional Trends Analysis, May 2026," APEC, <https://www.apec.org/publications/2026/05/apec-regional-trends-analysis-may-2026>(검색일: 2026. 7. 1.).

■ 보호주의적 산업정책의 확산은 지정학적 충격과 별개로 역내 공급망 압력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함.

- 글로벌 산업보조금은 2024년 1,080억 달러로 2005년 이후 최고 수준에 달함.⁴⁾
 - OECD는 2005~23년 주요 다국적 기업의 글로벌 시장점유율 상승분 중 약 22%가 보조금의 효과라고 설명하며 중국기업은 그 비율이 약 60%에 달해 ‘공정한 경쟁 환경 훼손 논쟁’을 강화함.⁵⁾
- 2025년 APEC 역내 신규 무역 조치 303건 중 무역원활화 조치는 53건에 그침.⁶⁾
 - 회원경제들이 시장 개방보다 산업 보호와 경제 안보를 앞세우는 정책 흐름은 역내 통상환경 예측 가능성 및 공급망 안정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그림 2-2. 글로벌 산업보조금과 무역 조치 추이



자료: (좌) OECD MAGIC Database; (우) APEC PSU Regional Trends Analysis, May 2026.

표 2-1. 무역 공급망 관련 포럼협의체별 접근 방향과 주요 이니셔티브

포럼협의체	대표 이니셔티브·성과물	특징
APEC	APEC 연계성 청사진(2015-2025), ⁷⁾ 공급망 연계성 프레임워크(SCFAP I~III) ⁸⁾⁹⁾¹⁰⁾	물리적·제도적·인적 연결성, 실무 차원의 무역원활화 협력
OECD	산업보조금 데이터베이스(MAGIC), ¹¹⁾ 비시장정책의 영향 연구	데이터 기반 규범화, 공정경쟁
G7	경제안보 의제, 핵심광물 회복력·생산 동맹(2026) ¹²⁾	가치 공유국 간 안보·공급망 결속
G20	글로벌 가치사슬(GVC) 매핑을 위한 일반 프레임워크(2023), ¹³⁾ 에너지·핵심광물 거래형 접근(2026) ¹⁴⁾	개별국 주권·거래 중심

자료: 협의체 성과문서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4) OECD(2026), "OECD MAGIC Database of Industrial Subsidies," <https://www.oecd.org/en/data/dashboards/magic-database-industrial-subsidies.html>(검색일: 2026. 7. 1.).

5) OECD(2025), "The Market Implications of Industrial Subsidies," OECD Trade Policy Papers, 296,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the-market-implications-of-industrial-subsidies_e40b793f-en.html(검색일: 2026. 7. 1.).

6) APEC Policy Support Unit(2026), "APEC PSU Regional Trends Analysis, May 2026," APEC, <https://www.apec.org/publications/2026/05/apec-regional-trends-analysis-may-2026>(검색일: 2026. 7. 1.).

7) APEC(2014), "APEC Leaders' Declaration Annex D - APEC Connectivity Blueprint for 2015-2025," https://www.apec.org/Meeting-Papers/Leaders-Declarations/2014/2014_aelm/2014_aelm_annexd(검색일: 2026. 7. 1.).

8) APEC Policy Support Unit(2016), "APEC Supply Chain Connectivity Framework Action Plan 2010-2015: Final Assessment," <https://www.apec.org/Publications/2016/11/APEC-Supply-Chain-Connectivity-Framework-Action-Plan-2010-2015-Final-Assessment>(검색일: 2026. 7. 1.).

■ 협의체들은 공급망 의제를 다뤘은 이력과 기구의 성격에 따라 서로 다른 대응 방식을 축적해옴.

- APEC은 선진·개도 회원경제가 혼재한 비구속적 협의체로서 지속적인 경제통합과 자유무역 진전을 목적으로 하는 FTAAP 논의와 공급망 병목 해소라는 기술적·비정치적 접근을 취해왔음.
 - APEC 연계성 청사진과 공급망 원활화 행동계획(SCFAP I~III)을 통해 공급망 병목과 교란을 기술적으로 해소하려는 실무 협력을 축적함.
- OECD는 분석 역량을 갖춘 규범기구로서, MAGIC 데이터베이스 등 정책 인프라를 구축해 비시장적 관행과 산업보조금이 무역을 왜곡한다는 실증 근거를 쌓고 규범 논의의 사실 기반을 제공함.
- G7은 2026년 핵심광물 회복력·생산 동맹(Critical Minerals Resilience and Production Alliance) 등 경제 안보를 축으로 선진국 간 공급망 다변화 협력과 대응체계를 강화해옴.
- G20은 선진국·개도국이 함께 참여해 합의 기반이 넓지만 그만큼 구속력 있는 규범 형성이 어렵고 의장국 우선순위에 따라 접근이 크게 달라짐.
 - 인도가 의장국을 맡은 2023년에는 GVC 매핑 일반 프레임워크 등을 통해 공동 대응에 합의했으나, 미국이 의장국을 맡은 2026년에는 다자 규범보다 양자 협상을 통한 실리 중심의 에너지 및 핵심광물 확보에 무게가 실림.

■ 지정학적 갈등으로 규범에 기반한 대응이 약해지고 무역질서의 균열이 깊어지면서 비정치적·실무적 협력을 쌓아온 APEC의 방식이 이질적 회원경제체 간 협력의 접점으로 부각됨.

- 2026 APEC 통상장관회의 무역·공급망 논의도 이 연장선에서 공급망 회복력, FTAAP 진전, WTO 중심 다자무역체제 강화를 축으로 전개됨.

나. AI·디지털

■ AI는 단순한 기술을 넘어 글로벌 상품 무역의 지형을 재편하는 통상의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주목받음.

- WTO에 따르면 AI 관련 품목군(반도체·서버·통신장비 등)의 교역은 2025년 상반기 전년 대비 20% 넘게 늘어 전체 무역 성장의 절반 이상을 이끌었으며, 2040년까지 세계 무역을 34~37% 늘릴 잠재력이 있음.¹⁵⁾

9) APEC Policy Support Unit(2021), "Final Review of the APEC Supply Chain Connectivity Framework Action Plan 2017-2020 (SCFAP-II)," <https://www.apec.org/publications/2021/11/final-review-of-the-apec-supply-chain-connectivity-framework-action-plan-2017-2020-%28scfap-ii%29>(검색일: 2026. 7. 1.).

10) APEC Policy Support Unit(2024), "APEC Supply Chain Connectivity Framework Action Plan 2022-2026 (SCFAP-III): Mid-term Review," [https://www.apec.org/publications/2024/11/apec-supply-chain-connectivity-framework-action-plan-2022-2026-\(scfap-iii\)--mid-term-review](https://www.apec.org/publications/2024/11/apec-supply-chain-connectivity-framework-action-plan-2022-2026-(scfap-iii)--mid-term-review)(검색일: 2026. 7. 1.).

11) OECD(2026), "OECD MAGIC Database of Industrial Subsidies," <https://www.oecd.org/en/data/dashboards/magic-database-industrial-subsidies.html>(검색일: 2026. 7. 1.).

12) G7(2026. 6. 17.), "G7 Leaders' Declaration on Securing Supply Chains for Critical Minerals," <https://www.elysee.fr/en/G7evian/2026/06/17/g7-leaders-declaration-on-securing-supply-chains-for-critical-minerals>(검색일: 2026. 7.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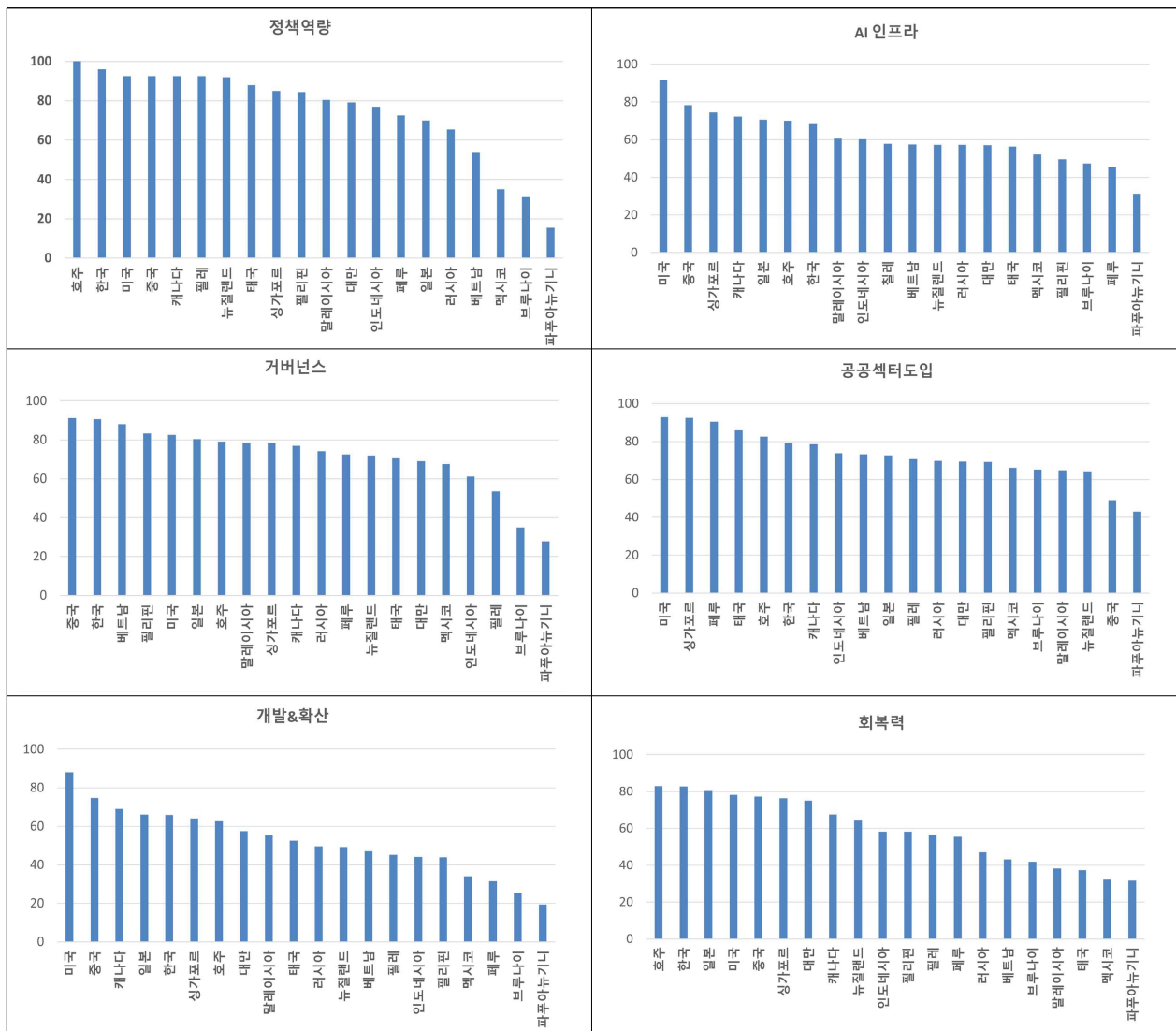
13) G20(2023), "G20 Trade and Investment Ministers Meeting Annex A - G20 Generic Framework for Mapping GVCs," <https://g7g20-documents.org/database/document/2023-g20-india-sherpa-track-trade-and-investment-ministers-ministers-annex-g20-trade-and-investment-ministers-meeting-annexa>(검색일: 2026. 7. 1.).

14) G20(2026), "U.S. G20 Priorities," <https://g20.org/g20-united-states/>(검색일: 2026. 7. 1.).

■ 시를 활용할 ‘제도’와 ‘인프라’의 격차가 동시에 벌어지면서 디지털·AI 무역 격차 해소가 다자 협의체의 주요 과제로 부상함.

- WTO의 AI 무역정책 개방성 지표(AI-TPOI)는 서비스 무역장벽, AI 인에이블링 상품(반도체·중간재 등) 관세, 지식재산권 및 국경 간 데이터 이동 제약의 세 영역 모두에서 제약이 늘고 있음을 보여줌.¹⁵⁾
 - 고소득·상위중소득 경제는 AI·디지털 무역에 대한 정책 틀이 잘 잡혀 있고 AI 관련 생산에 대한 재정 지원도 큰 반면, 저소득 경제는 데이터 이동·AI 규제를 최근해야 마련하기 시작함.
- APEC 회원경제 간 AI 관련 지표에서도 선도 회원경제와 후발 회원경제 사이에 뚜렷한 양극화가 나타남.
 - Oxford Insights의 정부 AI 준비도 지수 2025에 따르면 홍콩을 제외한 20개 회원경제 간 준비도 편차가 큼.

그림 2-3. APEC 역내 AI 준비도 지수 비교



자료: Oxford Insight Government AI Readiness Index 2025(홍콩 제외).

15) WTO(2025. 9. 17.), “AI to Boost Trade by Nearly 40% by 2040 if Gaps are Bridged, World Trade Report 2025 finds,” https://www.wto.org/english/news_e/news25_e/wtr_15sep25_e.htm(검색일: 2026. 7. 1.).

16) WTO(2025), “World Trade Report 2025,” https://www.wto.org/english/res_e/booksp_e/wtr25_exec-summm_e.pdf(검색일: 2026. 7. 1.).

표 2-2. AI 디지털 관련 포럼협의체별 접근 방향과 주요 이니셔티브(~2025년)

포럼협의체	대표 이니셔티브·성과물	특징
APEC	AI 이니셔티브, ¹⁷⁾ AIDER, ¹⁸⁾ 종이 없는 무역	포용적 활용·무역실무 도입(규제 우회), 비규범 자발적 협력
OECD	OECD AI 원칙(2019), ¹⁹⁾ 히로시마 AI 보고 프레임워크 운영(2025) ²⁰⁾	규범 정착·이행 모니터링·데이터화
G7	히로시마 AI 프로세스 지침·행동강령(2023) ²¹⁾	안전·신뢰 규범 형성
G20	무역문서 디지털화 고위원칙(2023), ²²⁾ OECD AI 원칙 채택 ²³⁾	규범 수용

자료: 협의체 성과문서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글로벌 AI 논의는 2019년 OECD AI 원칙 이후 협의체들이 규범 제정과 실무 활용으로 역할을 나누며 서로 보완하는 구조로 발전해옴.

- AI 거버넌스 논의는 OECD AI 원칙(2019)에서 출발한 논의를 G20이 채택하며 보편성을 키웠고, G7 히로시마 프로세스(2023)가 지침·행동강령으로 구체화한 뒤 그 이행을 다시 OECD의 글로벌 보고 프레임워크로 점검하는 구조를 이룸.
- OECD와 G7은 신뢰할 수 있는 AI 구축을 위한 안전성·위험 규제와 가치 연대에 집중함.
- G20은 규범 합의보다 무역문서 디지털화 고위원칙 채택 등 무역원활화 규범 수용에 무게를 둬.
- APEC은 구속적 규범 경쟁 대신 인터넷·디지털 경제 로드맵(AIDER 2017)·무역디지털화 협력 프레임워크·종이 없는 무역 등 무역원활화와 회원경제 간 역량 강화 관점에서 협력을 이어옴.

■ AI 교역이 빠르게 늘고 제도·인프라 격차가 함께 벌어지는 가운데 규범 형성이 선진국 중심 협의체에 몰리면서 발전 단계가 다른 경제체를 아우를 접점이 필요해짐.

- 규범 경쟁을 피하고 포용적 활용과 역량 강화 협력을 쌓아 온 APEC의 접근은 2025년 정상회의에서 한국 주도하에 ‘APEC AI 이니셔티브’ 합의로 결실을 맺음.
- 이러한 흐름 위에서 AI·디지털이 2026 통상장관회의의 핵심 의제로 다루어짐.

17) APEC(2025), “APEC Artificial Intelligence (AI) Initiative (2026-2030),” [\(https://www.apec.org/meeting-papers/leaders-declarations/2025/2025-apec-leaders-gyeongju-declaration/apec-artificial-intelligence-\(ai\)-initiative-\(2026-2030\)\)](https://www.apec.org/meeting-papers/leaders-declarations/2025/2025-apec-leaders-gyeongju-declaration/apec-artificial-intelligence-(ai)-initiative-(2026-2030))(검색일: 2026. 7. 1.).

18) APEC(2017), “APEC Internet and Digital Economy Roadmap,” [\(https://www.apec.org/docs/default-source/groups/ecsg/17_csom_006.pdf\)](https://www.apec.org/docs/default-source/groups/ecsg/17_csom_006.pdf)(검색일: 2026. 7. 1.).

19) OECD(2019), “Scoping the OECD AI Principles: Deliberations of the Expert Group on Artificial Intelligence at the OECD (AIGO),” OECD Digital Economy Papers, 291,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scoping-the-oecd-ai-principles_d62f618a-en.html\)](https://www.oecd.org/en/publications/scoping-the-oecd-ai-principles_d62f618a-en.html)(검색일: 2026. 7. 1.).

20) OECD(2025), “G7 Reporting Framework - Hiroshima AI Process (HAIP) International Code of Conduct for Organizations Developing Advanced AI Systems,” [\(https://oecd.ai/en/g7-reporting-framework\)](https://oecd.ai/en/g7-reporting-framework)(검색일: 2026. 7. 1.).

21) European Commission(2023), “G7 Leaders’ Statement on the Hiroshima AI Process,” [\(https://digital-strategy.ec.europa.eu/en/library/g7-leaders-statement-hiroshima-ai-process\)](https://digital-strategy.ec.europa.eu/en/library/g7-leaders-statement-hiroshima-ai-process)(검색일: 2026. 7. 1.).

22) G7G20 Documents Database(2023), “G20 Trade and Investment Ministers Meeting Annex C - High Level Principles on Digitalization of Trade Documents,” [\(https://g7g20-documents.org/database/document/2023-g20-india-sherpa-track-trade-and-investment-ministers-ministers-annex-g20-trade-and-investment-ministers-meeting-annexc\)](https://g7g20-documents.org/database/document/2023-g20-india-sherpa-track-trade-and-investment-ministers-ministers-annex-g20-trade-and-investment-ministers-meeting-annexc)(검색일: 2026. 7. 1.).

23) G20(2019. 6. 9.), “G20 Ministerial Statement on Trade and Digital Economy,” [\(https://www.meti.go.jp/policy/trade_policy/G20/G20_DE_Outcome_Document.pdf\)](https://www.meti.go.jp/policy/trade_policy/G20/G20_DE_Outcome_Document.pdf)(검색일: 2026. 7.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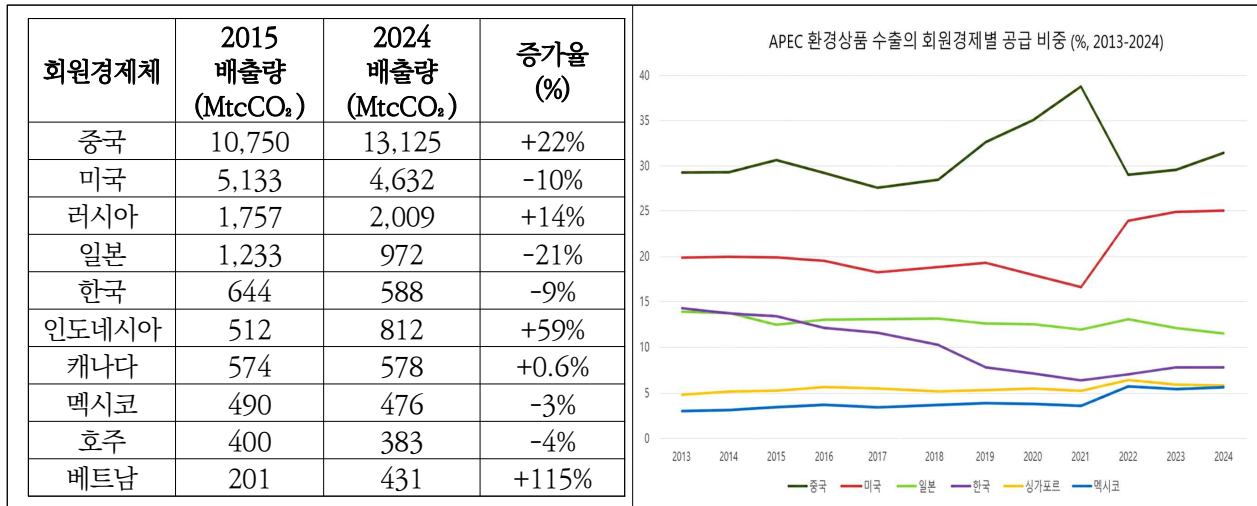
다. 환경

■ 환경 의제는 산업 전략과 결합되면서 동일한 조치가 선진국에게는 기후 대응과 녹색산업 산업 전략으로, 개도국에게는 녹색 보호주의로 해석되는 양면성을 보임.

- 선진국은 일방적 기후 통상정책을 정당한 기후 대응이자 공정경쟁을 위한 경쟁력 확보의 수단으로 인식함.
 - 미국의 Inflation Reduction Act(IRA)나 EU 산업가속화법 등 주요 경제권 역시 자국산 부품 활용, 상계관세 부과 등의 무역 제한적 조치를 동시다발적으로 도입함.
- WTO에 통보된 환경 관련 무역조치는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APEC 회원경제가 통보한 환경 관련 무역조치도 2022년 이후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음.
- 반면 개도국은 동일 조치가 환경 기준을 명분으로 시장접근을 제약하는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함.
 - 특히 환경상품 공급망이 특정국에 집중된 상황에서 탄소·환경 기준의 일방적 조치가 발전 격차를 고착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인식함.

■ 환경상품 공급망의 특정국 집중과 자국 우선주의 산업정책이 확산되며 환경-무역 규범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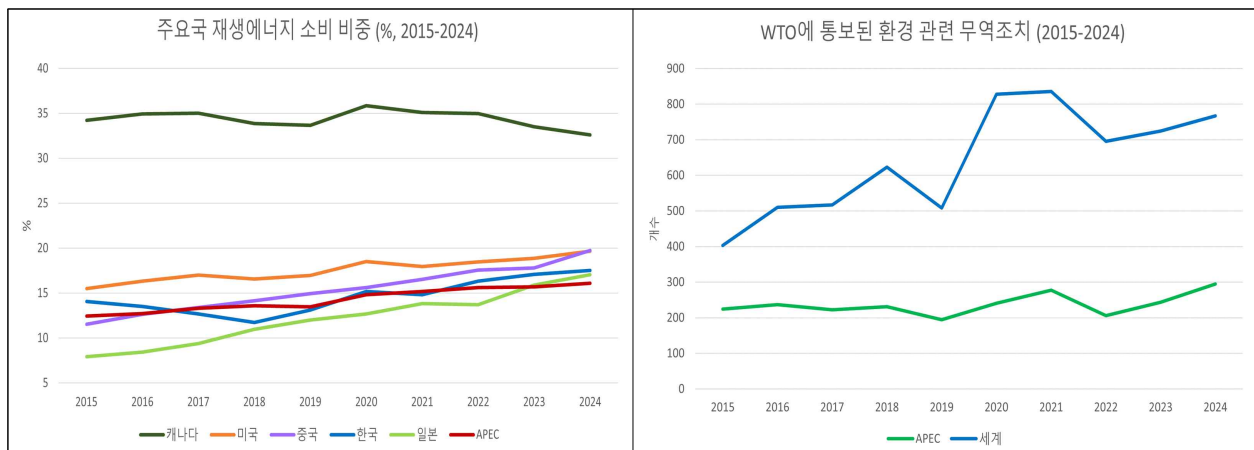
- 중국은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이면서 동시에 주요 환경상품·청정에너지 기술의 지배적 공급국으로 기후 변화 대응과 녹색산업 경쟁력을 함께 주도함.
 - APEC 환경상품목록 기준으로 중국은 환경상품의 30% 이상을 공급하며 주요 공급망을 주도함.
 -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중국은 태양광 패널 전 제조단계에서 80%가 넘는 점유율을 가지며, 폴리 실리콘·잉곳·웨이퍼 생산에서의 점유율은 곧 약 95%에 이를 전망이다.
 - 2025년 말 중국의 태양광 제조능력은 연 1,200GW로 글로벌 신규 설치량(약 650GW)을 크게 웃도는 데, 이는 모듈 가격을 크게 낮춰 재생에너지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공급망을 중국에 집중시켜 공급 교란과 경제안보 리스크를 키우는 양면성을 지님.

그림 2-4. APEC 회원경제의 CO₂ 배출량과 환경상품 공급 구조

주: 본 그래프에서 환경상품은 2012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APEC 환경상품목록 54개 품목(HS 6단위 기준)'을 기준으로 산정함.

자료: UN Comtrade Database; Emission Database for Global Atmospheric Research (EDGAR) / 표·그래프: 저자 작성.

그림 2-5. APEC 주요 회원경제의 녹색전환과 환경 관련 무역조치



자료: Our World in Data - Energy Consumption by Source(2026); Energy Institute -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25); WTO Environmental Database - Notifications(2025) / 그래프: 저자 작성.

표 2-3. 환경 및 기후 의제 관련 포럼협의체별 접근 방향과 주요 이니셔티브(~2025년)

포럼협의체	대표 이니셔티브·성과물	접근의 성격
APEC	환경상품 목록(2012), ²⁴⁾ 방콕 BCG 목표, ²⁵⁾ 비차별·획일적 조치 지양 원칙 ²⁶⁾	무역자유화 기반 녹색성장
OECD	IFCMA, ²⁷⁾ 산업보조금 데이터베이스(MAGIC), ²⁸⁾ 환경-무역 규범 연구	투명성·공정경쟁 기반 규범 연계
G7	기후클럽(2022), ²⁹⁾ 청정에너지 전환 협력	가치공유국 중심의 기후 대응 결속
G20	(2025 남아프리카공화국) 정의로운 전환 ³⁰⁾ ↔ (2026 미국) 기후변화 의제 축소	의장국 중심의 환경 의제 단절 및 후퇴

자료: 협의체 성과문서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APEC은 전통적으로 무역자유화를 통한 녹색성장이라는 접근을 유지해옴.
 - o 2012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정상 합의로 54개의 환경상품 목록을 채택하여 관세 인하를 약속한 것이 대표적임.
 - o 방콕 BCG 목표를 통해 순환경제를 강조하고 환경서비스 목록을 발굴하는 등 환경 관련 논의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옴.
 - o 2025년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싱가포르, 칠레, 뉴질랜드가 그린경제협정(Green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을 추진하는 등 역내 발전 격차를 고려해 자발적이고 비구속적이며 실용주의적 접근 방식을 일관되게 취해 옴.
- OECD는 IFCMA(Inclusive Forum on Carbon Mitigation Approaches, 포괄적 탄소감축포럼협의체)를 통해 각국 탄소감축 정책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관련 데이터를 공유하는 체계를 설립함.
 - o MAGIC 데이터베이스를 환경/산업정책 규율과 연계하여 산업보조금과 비시장적 정책이 무역 왜곡과 과잉생산을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해옴.
 - o 또한 G7 기후클럽의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며 다자간 기후 이니셔티브를 데이터와 방법론 측면에서 지원하고 보완해옴.
- G7은 2022년 기후클럽 출범 이후 탈탄소 산업전환과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경제안보 의제와 결합하며 환경 의제를 산업 경쟁력 확보의 전략적 수단으로 넓혀옴.
- G20은 2025년 남아공 의장국의 '정의로운 전환' 의제화와 2026년 미국 의장국의 기후 의제 배제가 뚜렷이 대비되며 의장국에 따라 의제 연속성이 끊기는 가장 두드러진 사례를 보여줌.

■ 기후·환경 이슈가 협의체별로 후순위로 밀리거나 파편화되는 가운데 중국이 의장국을 맡은 2026년 APEC 통상장관회의는 이를 '녹색경제'라는 틀로 다루었음.

- 규범 경쟁이나 감축 목표가 아니라 환경상품·서비스 교역 확대 및 기술 협력을 녹색경제협력의 구성요소로 제시하고 발전 단계와 기후위기에 대한 취약도가 상이한 회원경제가 함께 수용할 수 있는 논의 지점을 모색함.

24) APEC(2012), "APEC Leaders' Declaration Annex C: APEC List of Environmental Goods," https://www.apec.org/Meeting-Papers/Leaders-Declarations/2012/2012_aelm/2012_aelm_annexC(검색일: 2026. 7. 1.).

25) APEC(2022), "Bangkok Goals on Bio-Circular-Green (BCG) Economy," <https://www.apec.org/meeting-papers/leaders-declarations/2022/2022-leaders-declaration/bangkok-goals-on-bio-circular-green-%28bcg%29-economy>(검색일: 2026. 7. 1.).

26) APEC(2026. 5. 23.), "2026 APEC Ministers Responsible for Trade Joint Statement," <https://www.apec.org/meeting-papers/sectoral-ministerial-meetings/trade/2026-apec-ministers-responsible-for-trade-joint-statement>(검색일: 2026. 7. 1.).

27) OECD, "Inclusive Forum on Carbon Mitigation Approaches (IFCMA)," <https://www.oecd.org/en/about/programmes/inclusive-forum-on-carbon-mitigation-approaches.html>(검색일: 2026. 7. 1.).

28) OECD(2026), "OECD MAGIC Database of Industrial Subsidies," <https://www.oecd.org/en/data/dashboards/magic-database-industrial-subsidies.html>(검색일: 2026. 7. 1.).

29) G7(2022), "G7 Statement on Climate Club," <https://www.g7germany.de/resource/blob/974430/2057926/2a7cd9f10213a481924492942dd660a1/2022-06-28-g7-climate-club-data.pdf>(검색일: 2026. 7. 1.).

30) G20(2025), "Environment and Climate Sustainability Working Group G20 Technical Papers," <https://www.g20.org.za/wp-content/uploads/2025/11/ECSWG-G20-Technical-Papers-October-2025-Final.pdf>(검색일: 2026. 7. 1.).

3. 통상장관회의의 주요 논의 결과

가. 통상장관회의의 선언문(쑤저우 성명, Suzhou Statement)

1) 선언문의 위상과 구조

■ 통상장관회의의 선언문은 APEC의 연간 통상 협력 의제를 장관급에서 확인하는 문서로, 해당 연도 통상 분야의 협력 방향을 제시하고 의장국의 주요 성과물 마련을 위한 토대를 형성함.

- 통상장관회의에서 확인된 합의 내용은 이후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AMM)와 정상회의(AELM)에서 통상 관련 문안과 성과문서를 구체화하는 과정에 반영됨.
- 2026년 중국은 APEC 정상회의에서 정상선언문과 함께 FTAAP, 연결성, 디지털·AI 분야의 성과문서³¹⁾ 도출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논의는 쑤저우 선언의 구성과 문안에도 일정 부분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쑤저우 성명은 총 24개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크게 ‘지역·글로벌 무역의 진전(Advancing Regional and Global Trade)’과 ‘혁신적이고 역동적인 무역·투자 협력의 새로운 동력 육성(Foster New Engines of Innovative and Dynamic Trade and Investment Cooperation)’의 두 축으로 통상 의제를 배치함.

- 도입부(제1~3문단)는 회의 개요와 참석 기관, 개최지에 대한 감사, 푸트라자야 비전 2040 및 아오테아로아 행동계획 이행 의지, 2026년 APEC 주제와 중점과제를 확인함.
- 첫째 축인 ‘지역 및 글로벌 무역의 진전’(제4~16문단)은 FTAAP, 공급망, 식량안보, 연결성, 서비스, 투자, 무역원활화, 포용성, 지식재산권, WTO 등 지역경제통합과 글로벌 무역 관련 의제를 다룸.
- 둘째 축인 ‘혁신적이고 역동적인 무역·투자 협력의 새로운 동력 육성’(제17~23문단)은 디지털 경제, 무역 디지털화, AI, 국경 간 전자상거래, 환경 관련 의제를 중심으로 무역·투자 협력의 기반 확장 방향을 제시함.
- 맺음말(제24문단)은 11월 선전 정상회의에 대한 기대와 회원경제 간 협력 의지를 담고 있음.

표 3-1. 2026년 APEC 통상장관회의의 공동선언문 요약

	문단	주요 내용
1	도입	• 의장, 주요 외부 참석자, 개최지에 대한 감사 인사
2	통상환경	• 기술 발전과 산업 전환, 중대한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협력 플랫폼으로서 APEC의 의미 강조
3	장기 비전 및 주제	• 푸트라자야 비전 2040 및 아오테아로아 행동계획 이행 의지 확인 • 2026년 APEC 주제와 중점과제 확인
4	아태자유무역지대 (FTAAP)	• FTAAP 논의 합의 재확인, 국영기업, 노동, 환경, 디지털 무역, 무역원활화, 중소기업, 경쟁정책 등 이치마 성명에서 식별된 분야를 중심으로 높은

31) ‘FTAAP’ 어젠다 관련 성과문서 초안(제목: Promoting Trade and Investment with Mutual Trust)은 제2차 무역투자위원회에서 회람되었음. ‘연계성’과 ‘디지털·AI’ 관련 성과문서 컨셉 페이퍼는 제2차 고위관리회의 기간 이전에 회람되어 본회의에서 검토되었으며, 초안은 제3차 고위관리회의 이후 회람될 예정임.

	문단	주요 내용
		수준의 무역협정 추진과 협정 간 수렴 확대 노력을 지지
5	공급망-1	- 필수재(에너지, 핵심 원자재)의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 노력 재확인 - 역내 상호 연결성, 무역 회랑의 개방성, 무역 흐름의 지속성 강조
6	공급망-2 (연결성)	- 역내 회복력 있는 공급망 노력 지지 - SCFAP 3단계의 공급망 병목점 해소 기여 인정 및 2026년 11월까지 최종 검토 지지 - 공급망 논의에 대한 민간 부문 참여와 민관대화 활용 장려
7	식량안보	- 식량안보와 관련된 공급망 교란 요인 축소 필요성 강조 -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투명하고 생산적이며 회복력 있고 혁신적인 농식품 시스템 촉진
8	연결성	- APEC 연결성 청사진 이니셔티브를 계승하는 후속 노력 촉진, - APEC 기업인 여행카드(ABTC) 활용 확대, 양질의 인프라 개발·투자, 농촌 및 오지의 연결성 개선 강조
9	서비스	- APEC 서비스 인덱스 구축을 위한 노력 지지 「혁신적이며 경쟁력과 회복력 있는 서비스를 위한 APEC 로드맵」 환영 - 서비스 무역장벽 식별 및 완화, 디지털 기반 서비스 촉진 필요성 강조
10	투자	APEC 투자 원활화 행동계획 이행 노력 확인
11	무역원활화 (모범규제관행)	표준 및 적합성 평가 절차, 모범 규제관행, 기술표준 교류와 협력 강조
12	포용성	중소기업, 여성, 원주민의 경제성장 기여와 글로벌 시장 참여 확대를 위한 노력 강조
13	지식재산권	혁신과 창의성 발전을 위한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 강화
14	WTO-1	- 글로벌 무역원활화를 위한 WTO 규칙의 필요성 인정 - WTO 개혁 필요성 및 도전과제 해소를 위한 회원 간 협력 촉구
15	WTO-2	- 수산보조금 협정 이행 및 추가 협상 타결 촉구 - 농업협상 진전을 위한 건설적 참여 필요성 인정 -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관세 유예 지지 및 영구적 무관세화 노력 확인
16	WTO-3	- 공동성명 이니셔티브(JSI)의 긍정적 역할 인정 - 개발을 위한 투자원활화협정(IFD)과 전자상거래협정(ECA)의 WTO 법체계 편입 노력 주목 - 서비스 국내규제 JSI 참여 및 이행 노력 주목
17	디지털 경제	- 디지털 포용성 및 연결성 강화 - APEC 인터넷 및 디지털 경제 로드맵(AIDER) 지속적 이행 - 국경 간 데이터 흐름, 디지털 거래 신뢰, 데이터 보호 및 프라이버시 관련 논의
18	무역 디지털화 (종이 없는 무역)	- 무역 디지털화의 중요성과 이점 인식 - 전자무역서류의 국경 간 인정과 종이 없는 무역 가속화 - 무역 디지털화 관련 정책 권고안 마련 촉구 - 민관 협력 확대 및 전자서명·전자인증 관련 국제규범을 고려한 법제 정비 장려
19	AI	- APEC AI 이니셔티브 상기 - 무역 분야 AI 활용과 AI 관련 상품 및 서비스 교역 확대 의지 표명 - AI의 안전성, 접근성, 신뢰성, 안정성 제고 필요성 언급
20	AI와 무역	- AI 및 기술 혁신을 통한 공급망 효율성·안보·회복력 강화 - APEC 통관 절차 디지털화 및 현대화 작업 환영 - 무역 관련 AI 표준·기술에 대한 자발적 경험 공유와 AI의 역할 확대에 따른 무역 규범 논의 장려 - 중소기업(MSMEs)을 포함한 민간 부문과 AI 관련 정책 접근 공유
21	국경 간 전자상거래	국경 간 전자상거래의 중요성 인식 및 중소기업(MSMEs)의 글로벌 가치사슬 통합 촉진

	문단	주요 내용
		- 세관 행정, 소비자 보호, 기업 역량 강화 관련 APEC 작업 평가 - 관련 지침의 효과적 이행과 중소기업의 글로벌 디지털 경제 참여 지원
22	환경	- 기술 혁신을 통한 환경 도전과제 대응, 회복력 구축, 경제적 기회 창출 가능성 강조 - 기후 적응 및 재난 위험 경감을 위한 사전적(ex-ante) 투자 중요성 강조 - 과학·위험 기반 접근 및 일률적 조치 지양 필요성 언급 - 환경서비스 관련 작업과 환경·무역 목표 달성을 위한 역량 강화 및 경험 공유 권장
23	IU 어업 및 불법 별목	-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IUU) 및 불법 별목 관련 무역 대응 중요성 강조 - 정보 공유와 모범사례 확산을 통한 해당 부문의 합법적 무역 강화
24	맺음말	11월 선전 정상회의에 대한 기대와 회원경제 간 협력 의지 확인

자료: 2026/MRT/JMS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2) 핵심 의제별 분석

가) 지역 및 글로벌 무역의 진전(Advancing Regional and Global Trade)

■ 선언문의 첫째 축인 '지역 및 글로벌 무역의 진전'은 FTAAP, 공급망, 식량안보, 연결성, 서비스, 투자, 무역원활화, 포용성, 지식재산권, WTO 등 기존 통상 협력 의제를 포괄하면서 변화한 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APEC 차원의 협력 방향을 제시함.

- 2026년 선언문은 2025년과 달리 FTAAP과 공급망 관련 논의를 먼저 제시한 뒤, MC14 이후 확인된 WTO의 과제와 개혁 필요성을 다루는 방식으로 의제를 구성함.
- 이하에서는 2025년 선언문과 비교하여 내용상의 변화가 두드러진 FTAAP, 공급망, 서비스 및 WTO 분야를 중심으로 살펴봄.

■ FTAAP 분야에서는 역내 경제통합에 대한 기존 합의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역내 무역협정 간 수렴 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한 협력 의제를 보다 구체화함.

- 2026년 선언문은 FTAAP 어젠다를 통한 역내 경제통합 추진 의지를 재확인하고, 높은 수준의 포괄적 무역협정 참여 역량 제고를 위한 APEC의 역할을 강조함.
 - FTAAP 논의는 회원경제 간 제도적 여건과 통상협정 참여 경험의 차이를 고려하면서, 높은 수준의 포괄적 통상규범에 대한 이해와 참여 역량을 높이고 역내 수렴 가능한 분야를 단계적으로 넓혀가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음.
- 특히 이치마 성명³²⁾에서 제시된 후속 논의를 바탕으로 국영기업, 노동, 환경, 무역 디지털화, 디지털 무역, 무역원활화, 중소기업, 경쟁정책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역내 무역협정 간 수렴 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논의와 협력을 지지함.

32) 2024년 APEC 정상선언문 부속 문서인 「FTAAP에 대한 새로운 시각에 관한 이치마 성명(Ichma Statement on A New Look at the 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 Agenda)」을 의미함. 동 선언은 FTAAP 어젠다를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맞게 재검토하고, CTI FTAAP Agenda Work Plan 내에서 역내 FTA/RTA 관행의 수렴·발산 영역을 검토하기 위한 새로운 작업 흐름을 추진하도록 한 문서임.

- 2025년 선언문은 APEC 정책지원부서(PSU)의 연구와 이치마 성명에서 식별된 수렴·발산 분야의 후속 작업 개시를 언급한 데 비해, 2026년 선언문은 수렴 논의가 필요한 분야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FTAAP 논의의 실질적 작업 범위를 보다 분명히 제시함.
- 이러한 문안은 FTAAP 논의가 장기 비전의 재확인에 머무르지 않고, 역내 기존 FTA/RTA의 규범과 협력 분야를 비교·조정하면서 수렴 가능한 분야를 축적해가는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줌.
- 역량 강화 사업(CBNI)을 통한 경험 공유, 역량 강화, 기업 참여, 기술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함.
- APEC은 자발적·비구속적 협력 원칙에 따른 정책대화와 역량 강화를 통해 회원경제의 포괄적 통상규범에 대한 이해와 참여 역량 제고를 지원함.

■ 공급망 이슈에서는 필수재 공급망의 회복력과 무역 흐름의 지속성을 강조하고 SCFAP III의 최종 검토 완료를 지시함으로써 APEC 차원의 공급망 협력 논의를 점검하고 후속 논의 기반을 마련함.

- 2026년 선언문은 에너지 제품 및 핵심광물 등 필수재의 안정적 공급과 함께, 역내 상호연결성, 무역 회랑의 개방성, 무역 흐름의 지속성을 공급망 회복력의 주요 요소로 제시함.
 - 공급망 회복력 논의는 생산기지 다변화나 공급망 병목 해소를 넘어, 필수재 교역, 핵심 운송로, 물류·인프라의 안정적 작동 문제로 확장되고 있음.
 - 호르무즈 해협 등 주요 해상 운송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에너지와 핵심 원자재 교역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무역 회랑의 개방성 유지는 필수재 공급망 회복력을 뒷받침하는 핵심 조건으로 부각됨.
- 또한 2026년 선언문은 무역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급망을 교란할 수 있는 조치와 관련하여 투명성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공급망의 실행 가능성과 안정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의 역할을 강조함.
 - 공급망 협력은 단순한 위기 대응 차원을 넘어, 무역 흐름을 저해할 수 있는 정책·제도적 요인을 관리하고 핵심 인프라의 안정적 작동을 확보하는 문제와도 연결됨.
- SCFAP III와 관련해서는 동 계획이 역내 공급망 병목 해소에 기여한 점을 평가하고, 2026년 11월까지 최종 검토를 완료하도록 지시함.
 - 2025년 선언문은 SCFAP III의 이행과 공급망 병목 해소, 민간 부문 참여 확대를 강조한 반면, 2026년 선언문은 SCFAP III의 기여를 평가하고 최종 검토 일정을 명시함으로써 기존 공급망 연결성 협력의 성과를 점검하는 단계로 나아감.
 - 무역절차의 디지털 전환과 종이 없는 무역 전환이 SCFAP III의 주요 기여로 언급되면서, 공급망 회복력 논의가 무역원활화 및 디지털 전환 의제와 연계되고 있음.
- 공급망 논의에 대한 민간 부문 참여 확대와 민관 대화 활용을 장려함.
 - APEC은 공급망 논의에서 민간 부문 참여와 민관 대화를 확대함으로써, 실제 기업 활동에서 나타나는 병목 요인과 현장의 수요를 논의 과정에 반영하고자 함.

■ 서비스 분야에서는 APEC 서비스 경쟁력 로드맵(ASCR, 2016-2025) 종료 이후의 후속 협력 방향으로 「혁신적이고 경쟁력 있으며 회복력 있는 서비스를 위한 APEC 로드맵」을 환영하고 향후 APEC 서비스 협력의 기본 방향을 제시함.

- 2025년 선언문은 ASCR이 2025년에 목표 연도에 도달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post-2025 서비스 로드맵의 기본 틀을 마련할 것을 독려함.
 - o 당시 문안은 디지털 기반 서비스의 확대와 신기술의 영향을 고려할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2025년 이후 서비스 협력 논의가 디지털 전환과 기술 변화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필요성을 제시함.
- 2026년 선언문은 신규 서비스 로드맵을 환영하고, 혁신적이고 경쟁력 있으며 회복력 있는 서비스 부문을 위한 개방적이고 예측 가능한 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함.
 - o 2025년 선언문에서 제기된 post-2025 서비스 협력을 마련 논의가 2026년 신규 로드맵 환영으로 이어지면서 APEC 서비스 협력의 연속성이 확인됨.
- 또한 APEC Services Index에 디지털 무역 요소를 반영하여 서비스 무역장벽 식별 작업을 보완하고, 불필요한 장벽 완화와 디지털 서비스 축진을 지원할 필요성을 제시함.
 - o 서비스 협력은 기존의 규제 개혁 및 시장접근 논의에 더해, 디지털 기반 서비스 확대와 서비스 무역장벽의 측정·완화 논의로 이어짐.
- 신규 서비스 로드맵의 세부 내용은 나. 부속서 부분에서 별도로 검토함.

■ WTO 분야에서는 MC14에서 나타난 합의 도출의 한계와 WTO의 개혁 필요성을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한편, 수산보조금, 농업, 전자적 전송물 관세 유예, 공동성명 이니셔티브(JSI)를 포함한 주요 WTO 현안을 폭넓게 다룸.

- 2025년 선언문은 WTO의 개혁 필요성과 MC14의 성공적 개최 지원을 강조하며,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지지를 선언문 전반부에서 부각함.
 - o WTO의 합의된 규범이 글로벌 무역체제의 핵심 구성요소임을 확인하고, WTO의 전 기능에 걸친 개혁 필요성과 MC14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력 의지를 제시함.
- 2026년 선언문은 MC14에서 나타난 합의 도출의 한계를 언급하고, 이를 WTO가 직면한 과제와 의미 있는 개혁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계기로 평가함.
 - o 2025년 선언문이 MC14의 성공적 개최 지원에 초점을 두었다면, 2026년 선언문은 MC14에서 확인된 한계와 WTO의 개혁 필요성을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함.
 - o 동시에 WTO의 합의된 규범이 글로벌 무역을 원활화하는 데 핵심이 된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APEC이 '아이디어 인큐베이터'로서 WTO 회원 간 논의를 지원한다는 입장을 유지함.
- 수산보조금 협정, 농업, 전자적 전송물 관세 유예와 관련해서는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 지속과 관련 조치의 이행 필요성을 언급함.
 - o 수산보조금 협정에 대해서는 17개 APEC 회원경제의 비준 수락서 기탁을 환영하고, 나머지 회원경제의 국내 절차 완료와 추가 규율 협상 타결을 촉구함.
 - o 농업 논의에서는 건설적 관여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전자적 전송물에 대해서는 디지털 시장의 개방성과 예측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관세 유예를 지지함.
- JSI를 포함한 WTO 복수국 간 협상에 대해서는 현대적 통상 현안을 진전시키고 다자적 성과를 위한 동력을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고 인정함.

- 개발을 위한 투자원활화협정(IFD)과 전자상거래협정(ECA)의 WTO 법체계 편입 노력, 서비스 국내규제 JSI의 참여와 이행을 언급함으로써 복수국 간 논의를 통해 다자무역체제를 보완하려는 접근을 보여줌.

표 3-2. 2025년과 2026년 APEC 통상장관회의의 선언문의 주요 통상 의제 변화

분야	2025년	2026년
WTO	(제4~6문단) · WTO 지지 및 다자무역체제의 중요성 강조 · WTO MC14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력 의지 표명 · 수산보조금협정, 농업, 전자적 전송물 관세 유예, JSI 등 주요 현안 언급	(제14~16문단) · MC14 논의 교착과 WTO 개혁 필요성 명시 · 수산보조금협정, 농업, 전자적 전송물 관세 유예 관련 논의 지속 · JSI를 포함한 WTO 복수국 간 협상의 역할과 IFD 및 ECA의 WTO 법체계 편입 노력 언급
FTAAP	(제7문단) · FTAAP 어젠다를 통한 역내 경제통합 의지 재확인 · 역내 FTA/RTA 조문단의 수렴과 발산에 관한 PSU 연구 환영 · 이치마 성명 관련 후속 작업 개시와 CBNI 이행 노력 언급	(제4문단) · FTAAP 어젠다를 통한 역내 경제통합 의지 재확인 · APEC의 역량 강화 역할과 CBNI를 통한 협력 지속 언급 · 이치마 성명의 후속 논의를 바탕으로 높은 수준의 포괄적 무역협정 참여 역량 제고와 협정 간 수렴 영역 확대 노력을 지지
공급망	(제12~13문단) · SCFAP 3단계 이행 중요성 재확인 · 공급망 회복력 강화 필요성 강조 · 공급망 논의에서 민간 부문 참여 확대와 민관 대화 활용 장려	(제5~6문단) · 필수재 공급망 회복력 및 무역 흐름 지속성 강조 · 에너지 제품 및 핵심광물 등 필수재 교역과 무역 회랑 개방성 언급 · SCFAP 3단계의 공급망 병목점 해소 기여 평가 및 2026년 11월까지 최종 검토 지시
서비스	(제15문단) · ASCR의 2025년 목표 연도 도래 언급 · 2025년 이후 서비스 로드맵 마련 독려 · 디지털 기반 서비스 확대와 신흥 기술 영향 고려의 필요성 언급	(제9문단) · 혁신적이며 경쟁력과 회복력 있는 서비스 부문 강조 · APEC Services Index에 디지털 무역 요소 반영 지지 · 신규 서비스 로드맵 환영 및 서비스 무역 장벽 식별·완화 필요성 강조

자료: 2026/MRT/JMS와 2025/MRT/JMS를 토대로 저자 작성.

나) 혁신적이고 역동적인 무역·투자 협력의 새로운 동력 육성(Foster New Engines of Innovative and Dynamic Trade and Investment Cooperation)

- 선언문의 둘째 축인 ‘혁신적이고 역동적인 무역·투자 협력의 새로운 동력 육성’은 디지털 경제, 무역 디지털화, AI, 국경 간 전자상거래, 환경 대응 등 역내 무역·투자 협력 기반을 확장하기 위한 의제를 중심으로 구성됨.
- 2025년 선언문도 디지털 전환, 종이 없는 무역, AI의 무역원활화 활용 등을 다루었으나, 2026년 선언문에서는 디지털 경제와 무역 디지털화, AI와 무역, 국경 간 전자상거래가 별도 문단으로 제시되면서 관련 논의가 보다 세분화됨.

- 디지털 연결성, 데이터 흐름, 전자무역서류의 국경 간 인정, AI의 무역 활용, 중소기업의 국경 간 전자상거래 참여 등 분야별 협력 과제가 구체적으로 제시됨.
- 환경 분야에서는 기술 혁신과 회복력, 기후 적응 및 재난위험 경감, 환경서비스, IUU 어업 및 불법 벌목 대응이 함께 제시됨.
- 환경 대응을 기술 혁신과 경제적 기회, 적응 및 위험 관리, 관련 부문의 합법적 무역 강화와 연결해 다루고 있음.

■ 디지털 경제 및 무역 디지털화 분야에서는 디지털 전환의 혜택 확산과 디지털 연결성 강화를 강조하는 한편, 종이 없는 무역과 전자무역서류의 국경 간 인정 등 무역 절차의 디지털 전환을 주요 협력 과제로 제시함.

- APEC 인터넷 및 디지털 경제 로드맵(AIDER)을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디지털 격차 해소, 디지털 인프라 강화, 상호운용성 촉진, 디지털 문해력 및 역량 제고 등을 통해 디지털 전환의 기반을 확충할 필요성을 언급함.
- 디지털 경제에서 데이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국경 간 데이터 흐름 촉진, 디지털 거래에 대한 기업과 소비자의 신뢰 제고, 데이터 보호 및 프라이버시 보장을 함께 제시함.
- 데이터의 국경 간 활용 가능성과 디지털 거래의 신뢰 확보를 병행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디지털 경제 협력의 균형적 접근을 반영함.
- 무역 디지털화 문안에서는 전자선하증권과 전자인보이스 등 전자무역서류의 국경 간 인정, 전자양도성기록에 관한 UNCITRAL 모델법(MLETR)과 전자서명·전자인증 관련 국제규범을 고려한 법제 정비, 민관 협력 확대를 강조함.
- 특히 2025년 한국의 APEC 의장국 수임 당시 외교통상각료회의(AMM) 선언문에 명시된 APEC 종이 없는 무역 우수센터(ACCEPT) 설립 성과가 2026년 통상장관회의의 선언문에서도 종이 없는 무역과 무역 디지털화 협력의 기반으로 이어지고 있음.
- 아울러 APEC 차원의 무역 디지털화 정책 권고 마련을 요청함으로써, 종이 없는 무역 논의를 전자문서 활용을 넘어 제도와 정책 협력 차원으로 확장함.

■ AI와 무역 분야에서는 2025년 한국의 APEC 의장국 수임 당시 정상 차원의 성과로 채택된 APEC AI 이니셔티브를 상기하고, AI의 무역 활용 가능성을 공급망, 통관, 표준·기술, 무역 규칙 논의로 확장함.

- 2026년 선언문은 APEC AI 이니셔티브를 상기하고, 무역 분야에서 AI 활용을 확대하는 한편 AI 관련 상품 및 서비스 교역을 증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힘.
- 이는 2025년 한국 의장국 성과가 2026년 통상장관회의에서도 무역·투자 협력 의제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줌.
- AI 및 기술 혁신을 통한 공급망 효율성, 안보, 회복력 강화와 통관 절차 디지털화 및 현대화, 무역 관련 AI 표준과 기술에 대한 자발적 경험 공유를 함께 언급함.
- 또한 AI의 역할 확대에 따른 무역 규칙 논의를 장려하고, 중소기업에 포함한 민간 부문과 AI 관련 국내 정책 접근법을 공유함으로써 기업의 기회 식별과 위험 대응,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고자 함.

■ 국경 간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는 중소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와 디지털 경제 편입을 지원하는 수단으로서 전자상거래의 중요성을 강조함.

- 2025년 선언문이 WTO 전자상거래 작업계획, 전자적 전송물 관세 유예, 전자상거래 협정 등 다자무역체제 차원의 논의를 중심으로 다룬 데 비해, 2026년 선언문은 국경 간 전자상거래를 역내 거래환경 개선과 중소기업의 디지털 경제 참여 확대의 관점에서 다룸.
 - 세관 행정, 소비자 보호, 기업 역량 강화 분야에서 추진된 APEC 작업을 평가하고, 「세관 및 국경 간 전자상거래를 위한 APEC 비구속적 지침」³³⁾ 등 관련 이니셔티브의 효과적 이행을 지지함.
 -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역량 강화와 중소기업의 디지털 플랫폼 및 글로벌 디지털 경제 참여 지원을 강조함.

■ 환경 관련 의제에서는 기술 혁신과 회복력 제고, 기후 적응 및 재난위험 경감, 환경서비스 협력, IUU 어업 및 불법 벌목 대응을 통한 관련 부문의 합법적 무역 강화 등을 포괄함.

- 2025년 선언문이 방콕 목표에 따른 순환경제 접근과 환경서비스 논의를 중심으로 환경 의제를 다룬 데 비해, 2026년 선언문은 기술 혁신, 회복력, 기후 적응, 재난위험 경감 등 환경 대응의 범위를 보다 구체화함.
- 환경 및 관련 도전과제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기술 혁신과 기후 적응을 주요 수단으로 제시함.
 - 기술 혁신을 통한 회복력 구축과 경제적 기회 창출 가능성에 주목함.
 - 기후 적응과 재난위험 경감을 위한 사전적 투자 및 과학·위험 기반 접근을 강조하고, 일률적 조치³⁴⁾를 지양함으로써(avoiding one-size-fits-all measures) 각 회원경제의 여건과 위험 수준을 고려할 필요성을 반영함.
- 환경서비스 분야에서는 역량 강화와 경험 공유를 통해 환경 목표와 무역 목표를 함께 달성하기 위한 협력 필요성을 제시함.
- IUU 어업 및 불법 벌목 대응과 관련해서는 정보 공유와 모범사례 확산을 통해 관련 부문의 합법적 무역을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함.

표 3-3. 2025년과 2026년 APEC 통상장관회의의 선언문의 AI·디지털·환경 의제 변화

분야	2025년	2026년
디지털 경제 및 무역 디지털화	(제8, 10문단) · AIDER의 2025년 이행 완료와 이후 접근 방향 논의 · 전자선하증권, 전자인보이스 등 전자무역서류의 국경 간 인정과 종이 없는 무역 촉진 · 전자양도성기록에 관한 UNCITRAL 모델법(MLETR)을 고려한 법제 정비와 민관 협력 장려	(제17~18문단) · AIDER 이행 지속과 디지털 연결성, 디지털 인프라, 상호운용성 강화 강조 · 데이터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국경 간 데이터 흐름, 디지털 거래 신뢰, 데이터 보호 및 프라이버시를 함께 제시 · 무역 디지털화 협력 프레임워크 진전, 정책 권고 마련, ACCEPT를 통한 민관 협력 확대 언급

33) 2014년 이후 통관절차소위원회(SCCP)의 국경 간 전자상거래 통관 논의와 2017년 AMM 부속서 「국경 간 전자상거래 원활화 프레임워크」를 토대로 발전한 결과물로, 2025년 SCCP 승인 후 2025년 AMM 선언문에서 환영됨.

34) 일률적 조치(one-size-fits-all) 방식은 2023년 미국 주최 APEC 정상선언문(AMM 포함)의 농업 지속가능성 분야에서 처음 등장한 이후 2025년 정상선언문까지 식량안보 해결 방식을 논의하는 맥락에서 지속적으로 활용됨.

분야	2025년	2026년
AI와 무역	(제11문단) · AI가 국제무역을 재편할 가능성 인식 · AI 활용을 무역원활화와 통관 절차 개선 중심으로 제시	(제19~20문단) · APEC AI 이니셔티브를 상기고, AI 관련 상품 및 서비스 교역 확대 의지 제시 · AI 및 기술 혁신을 통한 공급망 효율성, 안보, 회복력 강화 강조 · AI의 역할 확대에 따른 무역 규칙 논의와 민간 부문 대상 정책 접근 공유 장려
국경 간 전자상거래	(제5~6문단) · WTO 전자상거래 작업계획과 전자적 전송물 관세 유예 논의 중심 · 전자상거래협정의 WTO 법체계 편입 노력 언급	(제21문단) · 국경 간 전자상거래를 중소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및 통합과 연계 · 세관 행정, 소비자 보호, 기업 역량 강화 관련 APEC 작업 평가 · 「세관 및 국경 간 전자상거래를 위한 APEC 비구속적 지침」의 효과적 이행 지지
환경 관련 의제	(제18문단) · 방콕 목표에 따른 순환경제 접근 협력 지속 · 환경서비스 및 관련 서비스 기준 목록 활용과 역량 강화 논의	(제22~23문단) · 기술 혁신을 통한 회복력 구축과 경제적 기회 창출 가능성에 주목 · 기후 적응, 재난위험 경감, 과학·위험 기반 접근, 일률적 조치 지양 필요성 강조 · 환경서비스 협력과 IUU 어업·불법 벌목 대응을 통한 해당 부문의 합법적 무역 강화 언급

3) 평가

■ 쑤저우 성명은 다자무역체제의 불확실성, 공급망 회복력, 디지털·AI 전환 등 복합적 과제가 병존하는 상황에서 APEC 통상 논의의 주요 협력 의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한 문서로 평가할 수 있음.

- 쑤저우 성명은 FTAAP, 공급망, 연결성, 서비스, WTO 등 기존 통상 협력 의제를 재확인하는 한편, 디지털 경제, 무역 디지털화, AI, 전자상거래, 환경 등 신통상 이슈를 함께 다룸.
 - 신통상 이슈가 무역원활화, 공급망, 서비스, 환경 등 기존 통상 협력 분야와 연계되어 제시되면서 최근 APEC 통상 논의의 복합적 성격이 반영됨.
- 분야별 기존 협력의 성과를 점검하고 후속 조치를 구체화했으며, 전년도에 비중 있게 다뤄진 의제를 다음 단계의 협력으로 이어간 점이 특징임.
 - 공급망 분야의 SCFAP III 최종 검토와 신규 서비스 로드맵 채택은 기존 협력을 점검하고 중장기 후속 방향을 설정한 대표적인 사례임.
 - AI, 무역 디지털화, 서비스 협력, 공급망 회복력 등 한국이 의장국을 수임한 2025년의 주요 논의도 쑤저우 성명에서 후속 의제로 이어짐.

■ 의제 배치 측면에서는 WTO 중심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지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APEC 차원에서 진전 가능한 역내 협력 의제를 앞세우고 디지털·AI 전환 등 변화한 통상환경의 과제를 별도의 협력 의제로 구체화한 점이 두드러짐.

- 이는 다자무역체제의 제약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역내 경제통합, 공급망 회복력, 무역·투자 흐름의 안정성 등 회원경제 간 공통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APEC의 역할을 모색한 결과로 볼 수 있음.
- 2014년 중국의 APEC 의장국 수임 당시 주요 장기 협력 의제로 제시되었던 FTAAP와의 연결성이 쑤저우 성명에서 다시 다뤄졌다는 점도 의미가 있음.
 - FTAAP와의 연결성 논의는 과거 의장국의 성과를 재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급망 회복력, 디지털 전환, 무역·투자 흐름의 안정성 등 변화한 통상환경의 과제와 결합되어 제시됨.

■ 다만 의제별 강조 수준과 후속 이행의 구체성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향후 논의 과정에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포용성 논의는 2025년 선언문에서 별도 문단으로 비교적 상세히 다뤄진 데 비해, 쑤저우 성명에서는 ‘지역 및 글로벌 무역의 진전’ 축 안에서 시장 참여와 역량 강화 중심으로 통합되어 제시됨.
 - 여성, 원주민, 중소기업 등의 참여 확대를 계속 언급하고 있으나, 포용성을 독립적인 협력 의제로 부각하기보다는 지역 및 글로벌 무역 참여 확대의 맥락에서 다루고 있음.
- 환경 의제는 회원경제별 여건을 고려한 접근을 제시했다는 의미가 있으나, 기후·통상 간 주요 쟁점과 정책 대응은 제한적으로 다뤄짐.
 - ‘획일적 조치 지양’을 명문화해 환경 대응 방식의 다양성을 인정했으나, 구체적인 이행 방향과 정책수단은 향후 과제로 남음.
- AI, 디지털 무역, 환경 등 신통상 이슈에 대해서는 분야별 협력 방향과 일부 후속 과제를 제시하였으나, 세부 정책수단과 이행체계는 향후 관련 포럼협의체의 논의를 통해 구체화될 필요가 있음.
 - 정책 권고 개발, 역량 강화, 경험 공유 등 구체적인 후속 작업으로 이어질 경우 분야별 협력을 실질적으로 진전시킬 수 있음.

나. 부속서: 혁신적이고 경쟁력 있으며 회복력 있는 서비스를 위한 APEC 로드맵

1) 채택 배경과 주요 내용

- 2026년 APEC 통상장관회의에서는 「혁신적이고 경쟁력 있으며 회복력 있는 서비스를 위한 APEC 로드맵(APEC Roadmap for Innovative, Competitive and Resilient Services, 이하 ‘신규 서비스 로드맵’)」을 공동선언문 부속서로 채택하여,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된 기존 「APEC 서비스 경쟁력 로드맵(ASCR)」 이후의 서비스 협력 방향을 제시함.
- 신규 서비스 로드맵은 통상장관 공동선언문 제9문단에서 제시된 서비스 협력 방향을 부속서로 구체화한 것으로, 공동선언문 본문의 서비스 관련 논의를 후속 작업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함.
 - 공동선언문 제9문단은 혁신적이고 경쟁력 있으며 회복력 있는 서비스 부문을 위해 개방적이고 예측 가능한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서비스 무역장벽 식별을 위한 APEC Services Index 관련 작업 지속, 디지털 무역 요소의 반영, 불필요한 장벽 완화와 디지털 서비스 촉진을 지지함.³⁵⁾

- ASCR은 2015년 APEC 서비스 협력 프레임워크를 구체화한 장기 협력 로드맵으로, APEC 서비스 협력의 기본 틀을 마련했음.
- o APEC은 2015년 「APEC 서비스 협력 프레임워크(APEC Services Cooperation Framework)」를 통해 서비스 부문을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을 뒷받침하는 주요 분야로 제시했으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2016년 ASCR을 채택한 바 있음.³⁵⁾
- o ASCR은 서비스 부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서비스시장 개방, 국내 규제 개선, 구조 개혁, 전문인력 이동, 인터넷 기반 기술 발전에 따른 규제 대응, 서비스 통계 개선, 중소·영세기업(MSME) 및 여성의 참여 확대 등 광범위한 협력 과제를 제시함.³⁷⁾
- ASCR 최종 평가보고서는 2025년 목표 시점에도 APEC 역내 서비스무역 자유화와 규제개혁이 제한적이고 불균등하게 진전된 것으로 평가함.³⁸⁾
- o ASCR은 서비스 협력의 공통 방향을 제시하고 회원경제 간 논의를 촉진했다는 성과는 있었으나, 서비스무역 환경 개선은 전반적으로 완만한 수준에 그쳤으며 일부 부문에서는 규제 제한성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 o 디지털 서비스 관련 장벽의 증가, 회원경제별 규제 환경의 차이, 서비스 데이터와 통계의 부족은 정책 성과를 측정하는 데 제약 요인으로 작용했음.
- o 또한 워크숍, 정책대화, 역량 강화 사업 등 개별 활동과 ASCR의 상위 목표 및 성과지표 간 연계가 충분하지 않아, 실제 정책 변화와 시장 개선 효과를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었음.
- 이를 바탕으로 최종 평가보고서는 후속 협력에서 핵심 서비스 부문 개혁, 신흥 분야 협력, 서비스 데이터와 통계 개선, APEC 포럼협의체 간 협력 및 민간 부문 참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³⁹⁾하였으며, 이는 신규 서비스 로드맵의 주요 내용에도 반영됨.

■ 로드맵의 주요 내용은 서비스 부문의 혁신성, 경쟁력,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7개 원칙 및 목표와 이를 구체화하는 8개 중점 추진 분야로 구성됨.

- 7개 원칙 및 목표는 신규 서비스 로드맵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함.
- o 주요 내용은 △ 서비스무역과 투자를 위한 개방적이고 예측 가능한 환경 조성, △ 디지털 전환 촉진, △ 서비스 데이터 개선, △ 구조개혁 과정에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 △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 환경 및 환경 관련 서비스무역 촉진, △ FTAAAP 의제 지원을 위한 역량 강화와 정보 공유 및 기술협력 등임.
- 8개 중점 추진 분야는 이러한 원칙 및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제로, 주요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음.
- o 첫째, 서비스무역 및 투자 장벽 완화, 국내 규제 개선, 구조 개혁, 전문인력의 역내 기회 확대 등 ASCR

35) APEC(2026. 5. 23.), "2026 APEC Ministers Responsible for Trade Joint Statement," 제9문단, <https://www.apec.org/meeting-papers/sectoral-ministerial-meetings/trade/2026-apec-ministers-responsible-for-trade-joint-statement>(검색일: 2026. 7. 1.).

36) APEC(2016), "APEC Services Competitiveness Roadmap (2016-2025)," https://www.apec.org/Meeting-Papers/Leaders-Declarations/2016/2016_aelm/2016_Annex-B(검색일: 2026. 7. 1.).

37) *Ibid.*

38) APEC Policy Support Unit(2025), "APEC Services Competitiveness Roadmap (ASCR) Final Review," APEC, pp. 7-10, [https://www.apec.org/publications/2025/10/apec-services-competitiveness-roadmap-\(ascr\)-final-review](https://www.apec.org/publications/2025/10/apec-services-competitiveness-roadmap-(ascr)-final-review)(검색일: 2026. 7. 1.).

39) *Ibid.*, pp. 11-12.

에서 다루어온 전통적 서비스 통상 의제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음.

- 둘째, 디지털 전환, 데이터 흐름, AI 활용 환경, 기술표준, 서비스무역 데이터와 분석을 별도 분야로 제시함으로써 신흥 통상환경에 대한 대응을 강화함.
- 셋째, 지속가능성, MSME 참여, 디지털 격차 해소, 환경 및 환경 관련 서비스, 포럼협의체 간 협력, 민간 부문 참여, WTO 및 FTAAP 관련 논의를 포함해 APEC 서비스 협력의 의제 범위를 확장하고 있음.

표 3-4. 「혁신적이고 경쟁력 있으며 회복력 있는 서비스를 위한 APEC 로드맵」의 중점 추진 분야

행동 분야	주요 내용
1. 개방적이고 예측 가능한 서비스무역 및 투자 환경 조성	· 서비스무역 및 투자 장벽의 점진적 완화
2. 디지털 전환 수용	· 디지털 기술 도입 · 디지털 서비스 공급 · 디지털 거래, 데이터 흐름, AI 활용을 원활하게 하는 환경 조성 · 소비자와 기업의 신뢰 강화
3. 구조 개혁, 서비스 국내 규제 및 기술표준	· 서비스 규제 절차의 투명성, 예측 가능성, 효율성 제고 · 구조 개혁 논의와의 연계 ·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 · 무역원활화에 기여하는 기술표준 촉진
4. 인력 준비와 기회 확대	· 변화하는 서비스시장에 필요한 기술과 역량 강화 · 전문인력의 국경 간 기회 확대
5. 서비스무역 데이터와 분석	· APEC Index, 해외 자회사·계열사의 서비스 활동, 부가가치 무역 내 서비스 기여, 역내 서비스무역 및 투자 통계 등을 포함한 서비스무역 데이터의 가용성, 세분성, 비교 가능성 제고
6.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촉진	· MSME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책임 있는 기업 활동 지원, 디지털 격차 해소, 환경 및 환경 관련 서비스무역 촉진 등을 통해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서비스 성장 기반 강화
7. APEC 포럼협의체 간 협력 및 민간 부문 참여 확대	· 역량 강화, 모범규제 관행, 경험 공유 및 선구자적(pathfinder) 방식 등을 통한 APEC 전반의 협력 확대 · EC-GOS ¹⁾ 협력 경험의 서비스 관련 포럼협의체 확산 · ABAC ²⁾ 등 민간 부문 및 지역, 국제기구와의 연계 강화
8. 서비스무역 및 투자 관련 WTO 이니셔티브 지원	· WTO 복수국 간 협상, 공동성명 이니셔티브(JSI), 새로운 서비스 이슈 논의 등을 지원하고, 서비스무역 및 투자 분야의 다자 차원 성과 도출에 기여

주: 1) EC는 APEC 경제위원회(Economic Committee), GOS는 서비스그룹(Group on Services)을 의미.

2)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PEC Business Advisory Council)를 의미.

자료: APEC Roadmap for Innovative, Competitive and Resilient Services (2026) (2026/MRT/JMS/1)를 토대로 저자 작성.

- 신규 서비스 로드맵은 의제를 단순히 열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디지털 전환, 서비스무역 데이터, 포럼협의체 간 협력, 민간 부문 참여 등을 이행 기반과 협력 방식의 차원에서 보다 명시적으로 다루고 있음.
 - ‘디지털 전환’과 ‘서비스무역 데이터와 분석’이 별도 중점 추진 분야로 제시된 것은 향후 서비스 경쟁력 논의에서 데이터 흐름, AI 활용 환경, 디지털 거래, 서비스무역 측정 역량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반영함.
 -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포럼협의체 간 협력, 민간 부문 참여, WTO 서비스무역 및 투자 관련 이니셔티브 지원이 포함된 점은 서비스 협력이 개별 시장 개방이나 규제 개혁을 넘어 APEC 내 다양한 통상·구조 개혁·지역경제 통합 의제와 연계되고 있음을 보여줌.

2) 기존 로드맵과의 비교 및 평가

■ 기존 ASCR과 신규 서비스 로드맵은 서비스 경쟁력 제고와 서비스무역·투자 환경 개선이라는 협력 기조를 공유하나, 성과 목표와 이행 방식에서는 차이를 보임.

- 2016년 ASCR과 2026년 신규 서비스 로드맵은 모두 서비스 부문의 경쟁력 제고와 서비스무역 및 투자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연속성을 가짐.
 - 2016년 ASCR은 서비스시장 개방성 제고, 서비스 수출 비중 확대, 역내 서비스무역 증가율 제고 등 2025년까지 달성할 상위 성과 목표를 제시하고, 회원경제별 자발적 조치와 APEC 차원의 공동 행동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음.
 - 신규 서비스 로드맵도 혁신적이고 경쟁력 있으며 회복력 있는 서비스 부문 구축을 목표로, 서비스무역·투자 환경 개선과 회원경제 간 협력 확대를 주요 방향으로 제시함.
- 신규 서비스 로드맵은 별도의 정량적 상위 목표를 설정하지 않고, 향후 10년간의 중점 협력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됨.
 - GOS 이행계획 수립과 2029년 진전 상황 검토를 통해 세부 추진 방향을 구체화하고 필요에 따라 조정하도록 함.
 - 이는 ASCR 최종평가에서 회원경제별 규제 개혁 진전의 불균등성, 활동별 성과와 상위 목표 간 연계 부족, 서비스무역 데이터와 통계의 한계 등이 지적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음.

표 3-5. 2016년 서비스 경쟁력 로드맵과 2026년 신규 서비스 로드맵의 주요 특징 비교

구분	2016년 서비스 경쟁력 로드맵	2026년 신규 서비스 로드맵
공식 명칭	APEC Services Competitiveness Roadmap(2016-2025)	APEC Roadmap for Innovative, Competitive and Resilient Services
채택 형식	2016년 APEC 정상선언문의 부속서로 채택	2026년 APEC 통상장관 공동선언문의 부속서로 채택
목표 및 기본 방향	2025년까지 서비스 부문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서비스시장 접근을 위한 개방적이고 예측 가능한 환경 조성, APEC의 세계 서비스 수출 비중 확대, 역내 서비스무역 증가율 제고 등을 성과 목표로 제시	향후 10년간의 APEC 서비스 협력을 위한 로드맵으로서, 혁신적이고 경쟁력 있으며 회복력 있는 서비스 부문 구축을 목표로 원칙 및 중점 추진 분야를 제시
협력 범위	APEC 차원의 공동 행동과 회원경제별 자발적 조치를 병행하여 서비스 경쟁력 제고 추진	회원경제별·APEC 차원의 개혁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 방향을 제시하고, 디지털 전환, 지속가능성, 민간 부문 참여, WTO 및 FTAAP 관련 논의와 서비스 협력을 연계
주요 협력 의제	서비스무역·투자 장벽 완화, 국내규제 개선, 구조 개혁, 전문인력 이동, ICT 및 인터넷 기반 기술 대응, 서비스 통계 개선, 환경서비스, 제조업 관련 서비스, 교육·금융·교통·관광 등 APEC 차원의 광범위한 서비스 협력 포함	서비스무역·투자 환경 조성, 디지털 전환 수용, 구조 개혁, 국내 규제·기술표준, 인력 준비와 기회 확대, 서비스무역 데이터와 분석, 지속가능한 성장, APEC 포럼협의체 간 협력 및 민간 부문 참여, 서비스무역·투자 관련 WTO 이니셔티브 지원 포함
이행 체계	APEC 차원의 공동 행동, 회원경제별 자발적 구조 개혁, 역량 강화, 동료학습 및 경험 공유를 통해 이행	GOS가 로드맵 이행을 담당하고, 채택 후 12개월 이내에 이행계획을 수립

구분	2016년 서비스 경쟁력 로드맵	2026년 신규 서비스 로드맵
성과 관리 방식	고위관리회의가 진전 상황의 모니터링·평가를 총괄하고 장관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며, 2021년 중간점검을 통해 2025년 목표 달성을 위한 회원경제별·APEC 차원의 추가 조치를 검토	고위관리회의가 진전 상황의 모니터링·평가를 총괄하고, GOS가 고위관리회의에 보고하여 장관 보고로 이어지도록 하며, 2029년 검토를 통해 2035년 목표 달성을 위한 접근 방식을 조정

자료: 2026/MRT/JMS/1과 2016/AELM/DEC/Anxb를 토대로 저자 작성.

- 신규 서비스 로드맵은 ASCR과 채택 형식에서 차이가 있으며, 구속력 있는 시장 개방 약속이나 회원경제별 의무 이행계획이 아닌 APEC 차원의 서비스 협력 방향과 후속 이행의 틀을 제시하는 협력 문서라는 성격을 가짐.
 - 2016년 ASCR은 정상 차원에서 채택된 장기 로드맵이었고, 신규 서비스 로드맵은 2026년 통상장관회의의 공동선언문의 부속서로 채택됨.
 - 신규 로드맵은 GOS가 채택 후 12개월 이내에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고위관리회의가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평가하며, 2029년에 진전 상황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어 향후 서비스 협력의 기준 문서로 기능할 것으로 보임.
- 신규 서비스 로드맵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행계획의 구체성, 회원경제의 자발적 구조 개혁, 포럼협의체 간 협력, 민간 부문 참여 및 역량 강화 사업과의 연계 확보가 중요함.
 - 다만 APEC 협력의 특성상 신규 서비스 로드맵도 회원경제의 자발적 참여와 합의에 기초하므로, 단기간에 구체적인 시장 개방 성과로 이어지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APEC Services Index 개선, 서비스무역 데이터와 분석, 구조 개혁 및 국내 규제 개선, FTAAP 관련 역량강화 등 중점 분야를 구체적인 사업으로 발전시키고, 분야별 우선순위와 성과 점검 방식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이행계획이 개별 활동과 성과지표, 후속 평가 방식을 충분히 연계하지 못할 경우, ASCR 최종평가에서 지적된 활동과 성과 간 연계 부족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도 있음.
 - 회원경제의 참여와 민간 부문 수요 반응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후속 이행의 주요 과제임.

■ 2025년 한국 APEC에서 강조된 AI, 디지털 전환, 혁신, 포용적 성장 논의는 신규 서비스 로드맵과 의제적 연속성을 가지며, 향후 한국의 APEC 서비스 협력 참여 방향과도 연결될 수 있음.

- 2026년 중국 쑤저우 통상장관회의에서 신규 서비스 로드맵이 공동선언문의 부속서로 채택된 것은 2025년 한국 APEC에서 논의된 서비스·디지털·AI 관련 의제가 APEC의 중장기 서비스 협력 방향과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줌.
 - 신규 서비스 로드맵은 이러한 논의를 디지털 서비스, 데이터 흐름, AI 활용 환경, 인력 역량 및 MSME 참여 등 서비스 협력의 세부 분야에서 구체화함.
- 한국은 ASCR 초안 작성 단계부터 서비스 협력 논의에 참여하고 서비스 분야 국내 규제 원칙 및 서비스무역 규제환경 측정지수 개발에 기여한 경험이 있어, 신규 서비스 로드맵의 후속 논의에서도 기존의 서비스 협력 경험과 디지털 통상정책 역량을 활용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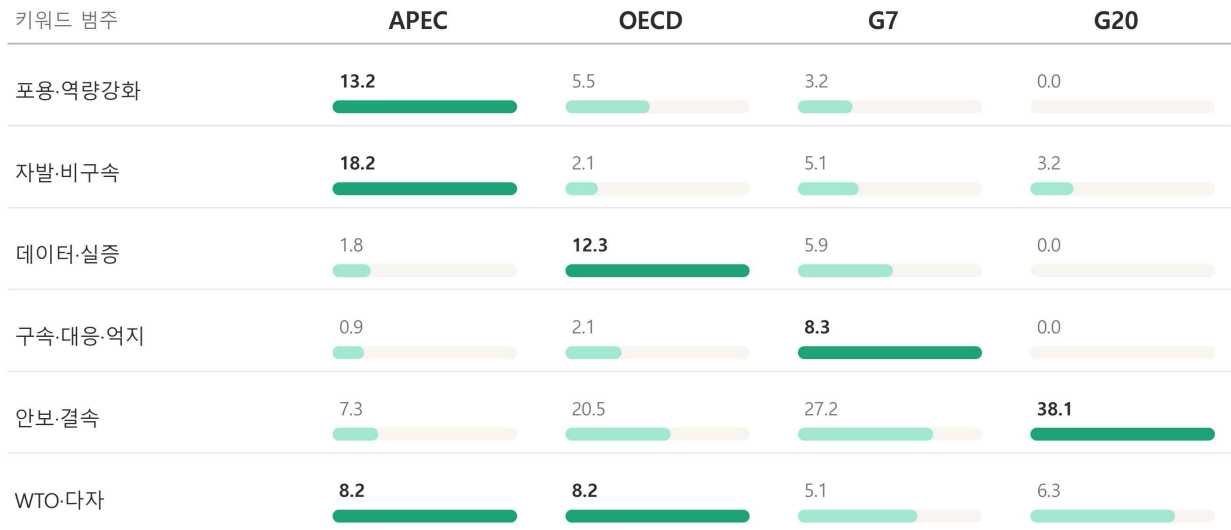
- 이러한 경험은 APEC Services Index 개선, 서비스무역 데이터와 분석, 국내 규제 개선 관련 후속 작업에 참여하는 데 제도적·실무적 기반이 될 수 있음.
- 향후 한국은 디지털 서비스와 AI 활용, 서비스무역 데이터, FTAAP 관련 역량 강화 등 정책 경험과 연계성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대화와 역량 강화 사업에 참여할 필요가 있음.

4. 평가와 시사점

가. 2026 다자협약체 의제 및 성과 비교

- 2026년 상반기 다자협약체는 공급망, AI·신기술, 기후·환경, 산업정책, 다자무역체제(WTO) 개혁의 5개 축에서 서로 다른 접근을 보임.
- 각료급 회의 기준으로 WTO MC14(3. 26.~30., 야운데) → G7 통상장관회의(5. 5.~6., 파리) → APEC 통상장관회의(5. 22.~23., 쑤저우) → OECD 각료이사회(6. 2.~ 4., 파리) → G7 정상회의(6. 15.~17., 에비앙) 순으로 개최되었으며, APEC 통상장관회의는 MC14 교착 이후 선진·개도 회원경제가 참여한 첫 다자 결집의 장이 됨.
- 4대 협의체의 2026년 상반기 성과문서에 나타난 키워드를 집계한 결과, 협의체별 접근 방식의 차이가 문언 수준에서도 뚜렷하게 확인됨(그림 4-1 참고).
 -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로 구성된 G7은 가치연대·안보 결속형, 분석 역량을 갖춘 OECD는 데이터·규범형, 발전 수준과 정책 여건이 상이한 회원경제를 아우르는 APEC은 실무 협력·이행 확산형, 의장국의 재량이 큰 G20은 의장국 주도형 접근을 취하며, 이러한 협의체별 특성은 주요 의제 전반에서 확인됨.
 - APEC에서는 자발·비구속 표현이 1,000단어당 18.2회로 가장 많이 등장하고, 구속·대응·억지 표현은 0.9회로 가장 적게 등장함. 포용·역량 강화 표현도 13.2회로 4대 협의체 가운데 가장 많이 등장함. 반면 G7에서는 구속·대응·억지 표현이 8.3회로 가장 많이 등장하고, 포용·역량 강화 표현은 3.2회로 가장 적게 등장함.
 - OECD에서는 데이터·실증 표현이 1,000단어당 12.3회로 다른 협의체보다 두 배 이상 많이 등장하여, 규범 논의에 실증적 기반을 제공하는 기능이 문언에서도 드러남.

그림 4-1. 4대 협의체 성과문서의 6개 키워드 범주별 출현 빈도 비교



주: 저자가 설정한 6개 키워드 범주의 출현 빈도를 집계하고 문서 길이로 정규화함(1,000단어당).

키워드 범주는 저자가 통상 규범 논의의 주요 축을 기준으로 구성한 것으로, 범주 설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 G20은 우선 과제 문건이기에 표본이 상대적으로 작음.

자료: 4대 협의체의 2026년 상반기 주요 성과문서(APEC 쉐저우 성명, OECD MCM 의장성명, G7 통상장관 커뮤니케 및 예비양 정상 선언 3건, G20 미국 의장국 우선순위 문서)를 대상으로 저자 작성.

표 4-1. 2026년 상반기 다자협의체별 주요 의제 및 성과 비교

구분	APEC 통상장관회의 (5월)	OECD 각료회의 (6월)	G7 정상회의 (6월)	G20 정상회의 (12월 예정)
다자무역체제 (WTO)	MC14 교착 상태 현실 인정, 복수국 간 협상(JSI) 지지 및 새로운 규범의 '아이디어 인큐베이터' 역할	규범 기반 무역체제 및 WTO 중심성 강력 지지, 신속하고 의미 있는 체제 개혁 촉구	MC14 성과 부재 유감, 복수국 간 이니셔티브 역할 강조,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엄 영구화 요구	다자 규범보다 자국 정책 유연성·성장 잠재력 극대화에 집중
공급망	에너지 등 필수재 무역 통로 개방 유지, 물류 병목 해소 등 물리적/제도적 연결성 집중	비시장적 관행 및 임의적 수출 통제(경제적 강압) 견제, 핵심 광물 규범 체계 구축	경제적 강압 억지, 핵심 광물 의존도 축소 및 시장 조성 수단(공동 조달, 가격 하한 등) 검토, 호르무즈 위기 대응	저렴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 확보, 강력한 에너지 자립 및 국가 안보 최우선
AI 및 신흥 기술	포용적 활용 및 디지털 격차 해소, 통관 등 무역 실무 도입, 규범보다는 자발적 정보 공유	안전성·신뢰성·인권 중심, 기술 유출 방지 및 다자간 리스크 관리 공조 명시	아동 보호 등 구체적 규제 가이드라인 제시, 민간 테크 기업과의 직접 교섭을 통한 안전망 구축	혁신과 기술 채택 가속화를 위한 규제 철폐, 경제성장 주도 동력
기후·환경	일률적 조치(One-size-fits-all) 지양, 개도국의 발전 격차를 고려한 포용 및 유연성 보장	보조금 투명성(MAGIC DB) 강조, 기후변화 대응과 투명한 산업 혁신(Industrial renewal) 연계	(핵심 의제화되지 않음: 핵심광물·에너지 안보 프레임으로 흡수)	기후·녹색 전환 의제 배제

구분	APEC 통상장관회의 (5월)	OECD 각료회의 (6월)	G7 정상회의 (6월)	G20 정상회의 (12월 예정)
산업 정책	핵심 의제화되지 않음	산업보조금 투명성 정당화(투명, 표적, 비례적 설계, 공정경쟁 훼손 및 과잉생산 비판	비시장정책(NMPP) 3대 표적 공동 대응, 거시 불균형의 조정 책임 배분(흑자국 내수 확대·적자국 재정 건전화)	기업 투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면적인 규제 부담 완화

주: G20 정상회의는 12월 개최 예정으로 의장국 우선순위 문서 및 재무트랙 결과(4월 워싱턴 재무장관회의의 성명 불발) 기준의 사전적 평가임.

자료: APEC MRT 공동성명(2026. 5.); OECD MCM 의장성명(2026. 6.); G7 통상장관 코뮤니케(2026. 5.); 예비양 정상회의의 성과문서(2026. 6.); G20 미국 의장국 우선순위 문서.

■ 아래에서는 제2장에서 다룬 3대 의제에 더해 성과문서에서 쟁점으로 부각된 WTO 개혁과 산업정책을 포함해 5개 축을 바탕으로 APEC 통상장관회의의 결과를 평가함.

1) 다자무역체제(WTO) 개혁

■ APEC 통상장관회의의 쑤저우 성명은 MC14 교착이라는 현실을 인정하면서 복수국 간 협상(JSIs) 등 대안적 규범 형성 경로의 역할을 인정함.

- 2026년 쑤저우 성명은 MC14의 ‘교착(impasse)’을 합의문에 직접 적시하며 다자체제의 현실적 한계를 인정하는 한편, WTO 규칙이 글로벌 무역원활화의 핵심임을 재확인함.
 -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모라토리엄도 그 자체는 ‘지지’하되 영구화는 ‘일부 경제의 노력에 주목’하는 이중 수위를 취하여(제15 문단), 선진·개도 회원경제 간 절충을 문언에 담음.
- 복수국 간 협상(JSIs)을 인정하며, APEC이 새로운 무역 규범을 선제적으로 실험하고 다자체제로 이식하는 ‘아이디어 인큐베이터’임을 재확인함.⁴⁰⁾
 - 다만 성명의 문언은 ‘지지(support)’가 아닌 ‘역할 인정(recognize)·주목(note)’ 수준으로 절제되어 있어, 복수국 간 경로에 대한 일부 회원경제의 유보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됨.

■ OECD·G7은 기존 규범체제의 당위성을 옹호하며 개혁을 촉구함.

- “WTO 규칙이 글로벌 무역원활화의 핵심”이라는 문장이 쑤저우 성명 제14문단, G7 통상장관 코뮤니케 제12문단, OECD MCM 의장성명 제17문단에 동일하게 등장하고 G7 정상선언에도 비슷한 표현이 등장함.
 - 이는 각 협의체가 WTO 개혁의 최소 합의 문안을 공유하고 있음을 보여줌.
- OECD 각료이사회의(MCM) 합의문은 WTO 중심의 체제를 지지하며 조속한 체제 개혁 및 분쟁 해결 기능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원칙론적 입장을 지킴.⁴¹⁾

40) APEC(2026. 5. 23.), “2026 APEC Ministers Responsible for Trade Joint Statement,” 제14·16문단, <https://www.apec.org/meeting-papers/sectoral-ministerial-meetings/trade/2026-apec-ministers-responsible-for-trade-joint-statement>(검색일: 2026. 7. 1.).

41) OECD(2026. 6.), “Statement of the Chair of the 2026 MCM,” 제17문단, <https://www.oecd.org/content/dam/oecd/en/events/2026/>

- G7 통상장관회의는 MC14의 실질적 성과 부재에 유감을 표하고 의미 있는 개혁을 위한 건설적 논의를 촉구하는 한편, 복수국 간 이니셔티브의 역할과 전자적 전송물 무관세 모라토리엄의 영구화를 강조하였으며, 개혁 촉구는 6월 정상선언문에서도 재확인됨.⁴²⁾
- MC14 일괄 타결의 병목이 모라토리엄 연장을 둘러싼 이견이었던 만큼, G7의 '영구화 강조'와 APEC의 '지지하되 영구화는 주목'이라는 이중 수위의 대비는 이 쟁점의 선진·개도 대립선이 포럼협의체의 회원 구성에 따라 문언 강도로 나타남을 보여줌.
- G20은 2025년 남아공 의장국 통상장관회의에서 WTO 개혁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뤘으나, 의장 우선순위에 대한 컨센서스 결과 문서를 내지는 못함.⁴³⁾

■ WTO 규범 형성 기능이 협의체로 분산되는 국면에서 선진·개도 회원경제가 모여 지지 기반과 변화의 실마리를 찾는 것이 APEC의 역할로 남음.

- 쑤저우 성명은 수산보조금협정 비준 독려와 복수국 간 협정 편입 노력 주목이라는 구체적 이행 과제까지 논의를 이어가며 교착 상태에 빠진 다자체제에 대한 선진·개도 공동의 지지 기반을 확인함
- 다만 WTO 개혁 논의를 APEC 내에서 구체화하는 데 대해 일부 회원경제의 반대가 이어지고 있어 민감한 부분을 우회하면서도 다자질서 확립에 기여할 방안을 찾는 것이 과제임.
- 아울러 이러한 분산이 규범 논의의 파편화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각 협의체의 성과가 다자체제로 다시 반영되어야 하며 그 연결 통로를 어떻게 만들지도 과제로 남음.

2) 공급망

■ APEC 통상장관회의에서의 공급망 논의는 역내 인적·물리적·제도적 연결성 강화를 통한 실물 경제의 병목 현상 해소에 집중함.

- APEC은 물리적·제도적·인적 연결성을 강화하는 연계성 청사진에 기반하여 공급망 교란을 안보 위협보다는 무역원활화의 기술적 저해 요인으로 접근해온 맥락을 2026년에도 이어가며 후속 목표를 설정하려는 노력을 기울임.
- APEC은 경제협력체라는 성격상 지정학적 갈등 자체에 대한 논의를 자제해 왔으나, 이번에는 호르무즈 해협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미·이란 전쟁에서 비롯된 에너지 공급망 문제를 사실상 다루었음. 이를 에너지 제품과 핵심 하방 파생재를 포함한 필수재의 '무역 통로 개방' 유지라는 가치중립적 문언으로 반영하여 회원경제 간 합의를 도출함.⁴⁴⁾

06/mcm/2026-mcm-chair-statement.pdf(검색일: 2026. 7. 1.).

42) G7(2026. 5. 6.), "G7 trade ministers' joint communiqué," 제12문단, <https://uk.diplomatie.gouv.fr/en/g7-trade-ministers-joint-communique>(검색일: 2026. 7. 1.).

43) G20(2025), "Chair's Summary: G20 Trade and Investment Ministers Meeting," <https://g20.org/g20-media/chairs-summary-g20-trade-and-investment-ministers-meeting-gqeberha-eastern-cape-province-south-africa/>(검색일: 2026. 7. 1.).

44) APEC(2026. 5. 23.), "2026 APEC Ministers Responsible for Trade Joint Statement," 제5문단, <https://www.apec.org/meeting-papers/sectoral-ministerial-meetings/trade/2026-apec-ministers-responsible-for-trade-joint-statement>(검색일: 2026. 7. 1.).

- 동시에 2026년 종료되는 제3차 공급망 연계성 프레임워크(SCFAP III)의 성과를 확인하고 11월까지 최종 검토를 마치도록 지시하는 등, 물류 병목 해소와 통관 절차 간소화라는 실무적·제도적 연결성 확보에 주력함.⁴⁵⁾

■ APEC이 공급망 교란에 대해 기술적·실무적으로 접근하는 것과 다르게 OECD·G7은 이를 경제적 강압·경제 안보의 틀로 다루며 직접적인 대응을 촉구함.

- OECD 각료회의(MCM) 의장성명은 비시장적 관행과 경제적 강압을 공급망 교란의 핵심 원인으로 짚고, 데이터·연구에 기반한 핵심광물 다자 규범 구축을 강조함.⁴⁶⁾
- G7 통상장관회의(5월)는 임의적 수출통제를 통한 경제적 강압에 우려를 표명하고, 경제적 의존을 무기화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한 억지와 필요시 대응 조치를 도입하기로 합의함.⁴⁷⁾
 - 특히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폭넓은 정책 수단의 타당성을 검토하기로 함.
- G7 정상회의(6월)는 호르무즈 해협의 즉각적·무조건적 재개방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하는 등, 실제 지정학적 위기 대응과 핵심광물의 특정국 의존도 축소를 위한 공동 행동을 확인함.
- G20은 공급망을 다자 규범보다 ‘저렴하고 안전한 에너지 공급’의 관점에서 다룰 예정임.⁴⁸⁾
 - 4월 워싱턴 재무장관회의는 중동발 공급망 교란을 논의했으나 회원국 간 이견으로 공동·의장 성명 도출에 실패함.⁴⁹⁾

■ 지정학적 갈등과 보호주의 확산, 디지털·AI 전환, 기후위기 등에 따른 복합적인 충격에 대응하여 회복력 있는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APEC의 주요 과제임.

- 다만 APEC은 비시장적 관행이나 수출통제 등 공급망 교란을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을 직접 다루지 않으므로, 기존의 실무 협력을 규범 기반 대응과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함.

3) AI 및 신흥 기술(Emerging Technologies)

■ APEC 통상장관회의는 역내 디지털 격차 해소와 무역원활화를 위한 AI의 포용적 활용에 방점을 둠.

- AI 거버넌스는 데이터 현지화와 국경 간 데이터 이동, 저작권, 에너지, 노동시장 등 여러 문제가 맞물려, 원천기술 보유 여부에 따라 선진·개도 회원경제 간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영역임.
- APEC은 각 회원경제가 AI의 위험과 기회를 이해하고 이를 경제성장에 활용하도록 규제보다 포용과 성장의 관점에서 의제를 다룸.

45) *Ibid.*, 제6문단.

46) OECD(2026. 6.), “Statement of the Chair of the 2026 MCM,” 제19·21문단, <https://www.oecd.org/content/dam/oecd/en/events/2026/06/mcm/2026-mcm-chair-statement.pdf>(검색일: 2026. 7. 1.).

47) G7(2026. 5. 6.), “The Outcomes of the G7 Évian Summit,” “Middle East” 및 “Critical minerals” 부문, <https://www.elysee.fr/en/G7evian/all-actualities>(검색일: 2026. 7. 1.).

48) G20(2026), “U.S. G20 Priorities,” “Unlocking Affordable and Secure Energy Supply Chains” 부문, <https://g20.org/g20-united-states/>(검색일: 2026. 7. 1.).

49) 「G20 재무장관, 중동사태 해결 강조…공동성명 채택은 불발」(2026. 4. 17.), 『연합뉴스』,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60417120915x0t>(검색일: 2026. 7. 1.).

- 규제·규범 형성 중심의 논의를 피하고, 디지털 격차 해소와 중소기업을 비롯한 모든 경제주체의 혁신 역량을 키우는 포용적 성장 도구로서 AI의 역할에 주목함.⁵⁰⁾
- 데이터 현지화·이동 같은 민감한 규제 논의는 자발적 경험 공유 수준으로 수위를 낮추는 한편, 종이 없는 무역 등 통관 시스템을 비롯한 무역 실무에 AI를 도입하는 방안을 강조함.⁵¹⁾

■ OECD·G7은 AI의 위험 통제와 안전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 지침 마련에 집중하는 반면 G20은 규제 완화를 통한 성장 가속에 무게를 둠

- OECD는 2023년 G7 회의에서 합의된 히로시마 AI 프로세스와 연계해 신뢰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을 촉구 하고 첨단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엄격한 위험 관리 공조를 명시함.⁵²⁾
- 2026년 G7 정상회의는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AI 챗봇 알고리즘 조정 등 구체적 규제 지침을 제시하고, 민간 테크기업과 직접 교섭해 안전망을 구축하기로 함.⁵³⁾⁵⁴⁾

■ 규제·규범 경쟁이 선진국 협의체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가운데 APEC은 AI의 실제 도입과 역량 강화를 통한 격차 해소라는 별도의 과제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됨.

- 2025년 한국 주도로 합의된 ‘APEC AI 이니셔티브’를 기반 삼아 AI 기술을 무역원활화와 나아가 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에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단계적 이행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다음 과제임.
- 다만 회원경제 간 이해가 갈리는 쟁점은 자발적 경험 공유 수준으로 다뤄지고 있어서, 향후 다른 다자협의체에서 규범 논의가 진전될 경우 APEC이 이를 어느 수준까지 수용할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임.

4) 기후 환경과 무역

■ APEC 통상장관회의는 기후변화 대응을 명분으로 한 무역 관련 기후정책과 국경 간 환경 규제의 확산에 대해 개도 회원경제의 방어적 입장을 반영하여 규범의 유연성과 비차별성을 강조함.

- 자국 우선주의의 무역 관련 기후정책 확산을 두고 개도 회원경제는 이를 녹색 보호주의로 보아 경계해옴.
- APEC은 기후 대응·적응에서 기술 혁신이 여는 경제적 기회를 인정하고 투자·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해옴.
- 이번 쑤저우 성명은 회원경제 간 발전 단계의 다양성을 고려해 기후·환경 목표를 이유로 한 무역 제한 조치에 ‘일률적 조치 지양’ 원칙을 명문화함.⁵⁵⁾

50) APEC(2026. 5. 23.), “2026 APEC Ministers Responsible for Trade Joint Statement,” 제17문단, <https://www.apec.org/meeting-paper/s/sectoral-ministerial-meetings/trade/2026-apec-ministers-responsible-for-trade-joint-statement>(검색일: 2026. 7. 1.).

51) *Ibid.*, 제20문단.

52) OECD(2026. 6.), “Statement of the Chair of the 2026 MCM,” 제14·15문단, <https://www.oecd.org/content/dam/oecd/en/events/2026/06/mcm/2026-mcm-chair-statement.pdf>(검색일: 2026. 7. 1.).

53) G7(2026. 5. 6.), “The Outcomes of the G7 Évian Summit,” “Digital and AI” 부문, <https://www.elysee.fr/en/G7evian/all-actualities>(검색일: 2026. 7. 1.).

54) G20(2026), “U.S. G20 Priorities,” “Pioneering Innovations in AI and Emerging Technologies” 부문, <https://g20.org/g20-united-states/>(검색일: 2026. 7. 1.).

55) APEC(2026. 5. 23.), “2026 APEC Ministers Responsible for Trade Joint Statement,” 제22문단, <https://www.apec.org/meeting-paper>

- 선진 회원경제의 일방적 기후통상 조치를 견제하려는 개도 회원경제의 입장이 상당히 반영된 결과로 보임.
- 다만 통상장관회의 의제로 녹색경제가 다뤄졌음에도, 공동성명에는 감축·녹색전환 관련 문언이 담기지 못함. 성명 전문에 ‘기후(climate)’ 논의가 등장하지 않고 ‘환경 및 관련 도전’이라는 우회적 표현과 적응·재해위험 경감 중심의 회복력 논의만 남음.
- 미·중이 합의 가능한 이슈로 논의가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함께 글로벌 기후협력의 약화를 보여줌.

■ 다른 협의체에서도 기후는 독립 의제의 지위를 잃고 다른 의제에 통합되거나 논의 비중이 축소됨.

- OECD는 보조금 투명성과 기후 대응·산업 혁신의 연계를 유지한 반면, 미국이 의장국을 맡은 G20은 기후·녹색전환 의제를 논의 대상에서 제외함.
- G7은 정상급 의제에서 기후를 독립 의제가 아니라 핵심광물·에너지 안보 프레임에 흡수함.
 - 기후클럽(2023년 출범)은 2026년 6월 제6차 회의에서 탄소 산정 방식의 상호운용성 확립을 위한 기술 지침을 구체화하고 청정 철강·시멘트 선도시장 조성 공조를 논의하는 등 기술 트랙에서 작업을 이어감.

■ 4대 협의체 성과물 중 기후·환경을 감축 의제로 다룬 곳은 OECD가 사실상 유일하며 기후통상 규범의 동력 약화가 문언 수준에서 재확인됨.

- 다만 APEC 내에서는 기후·환경 의제를 지지하는 회원경제가 여전히 영향력을 갖고 있고, 기후위기가 현실화됨에 따라 대응·적응을 위한 실무 차원의 논의는 이어지고 있음.
- 따라서 현재의 후퇴는 의제 자체의 소멸이라기보다 일시적인 정치적 국면의 영향으로 볼 수 있으며, 향후 주요 회원경제의 정책 기조와 리더십이 변화할 경우 다시 부상할 가능성이 있음.

5) 산업정책과 보조금

■ APEC은 산업보조금 규율을 의제로 삼지 않고 역량 강화와 경험 공유라는 우회 경로를 유지함.

- APEC은 산업정책 규율을 직접 다루지 않으나 FTAAP 의제 아래 무역협정 수렴 대화에 국유기업·경쟁정책을 포함해, 규율이 아닌 역량 강화·경험 공유라는 주제로 관련 논의를 이어감.

■ OECD·G7은 투명성과 거시 불균형 해소를 규율의 축으로 세우는 데 비해 G20은 규제 완화를 추구함.

- OECD 각료이사회(MCM)는 산업정책이 구조 불균형 대응, 기술역량 제고, 기후 대응 등 정당한 정책수단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실증하면서 이러한 정책이 시장과 무역을 왜곡하지 않도록 투명하고 표적화된 비례적 설계·이행을 조건으로 제시함.⁵⁶⁾

s/sectoral-ministerial-meetings/trade/2026-apec-ministers-responsible-for-trade-joint-statement(검색일: 2026. 7. 1.).

56) OECD(2026. 6.), "Statement of the Chair of the 2026 MCM," 제7·18·19·22문단, <https://www.oecd.org/content/dam/oecd/en/events/2026/06/mcm/2026-mcm-chair-statement.pdf>(검색일: 2026. 7. 1.).

- G7은 한발 더 나아가 비시장적 정책·관행이 부른 글로벌 구조적 과잉생산을 시장 왜곡과 무역수지 불균형의 한 원인으로 지목하고 규범 강화와 동맹국 간 공급망 재편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로 합의함.⁵⁷⁾
 - o G7 통상장관회의는 비시장정책·관행의 3대 표적으로 불투명·유해 산업보조금, 국유기업의 시장왜곡적 관행, 모든 형태의 강제 기술이전을 명시하고, 증거 공유와 대응 수단 강화를 통해 공동 대응을 이어가기로 함.
 - o G7 스스로 핵심광물 분야에서는 가격하한·공동조달 등 시장 개입적 수단을 함께 검토하고 있으며 비시장정책 비판과 시장 왜곡적 수단 활용 사이에 모순이 나타남.
 - o 비시장정책·관행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인식을 넓히기 위해 신흥·개도국 등 G7 외부 국가의 참여 확대를 명시한 것은 규범 형성 연합의 외연을 넓히려는 의도로서 주목할 만함.
- G20은 보조금 규율 대신 규제 부담 완화를 통한 기업 투자·경쟁력 강화를 핵심의제로 제시해서 ‘연대·평등·지속가능성’을 강조한 2025년 남아공회의와 논의의 온도차를 보임.

■ 산업정책·보조금은 디지털·그린 전환과 공급망 회복력에 직결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음에도 APEC에서는 정면으로 다뤄지지 않아, 향후 논의 과제로 부상할 가능성이 큼.

- 디지털·그린 전환이 새로운 성장 기회로 인식되는 만큼 개도 회원경제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적 자율성을 APEC 논의에서 강조할 가능성이 큼.
- 결국 산업정책의 허용 범위에 대한 국제 규범 설정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APEC 내에서도 공정한 경쟁을 위한 정책의 투명성과 정책 가이드라인 형성을 위한 논의가 확대될 여지가 있음.

나. 한국의 APEC 및 다자협의체 논의 대응 방향

■ 한국은 2025년 APEC 의장국 성과를 계승하면서도 포럼협의체마다 다른 기능을 단계적으로 활용해 2028년 G20 의장국에서 결실을 거두는 어젠다 축적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주요 협의체는 연중 순차적으로 열리며 의제가 포럼협의체 간에 순환되기 때문에 한국은 이 구조를 어젠다 축적의 경로로 삼을 수 있음.
 - o APEC에서 포용적 의제를 발굴하고 OECD에서 분석적 근거와 정책 대안을 마련한 뒤, 이를 G7 논의와 합치성을 가지고 G20 논의로 확산해 나가는 전략을 추진해야 함.
- 기존 논의의 연장선에 머무는 의제로는 폭넓은 지지를 얻기 어려우므로, 주요 협의체를 관통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점하고 이를 각 협의체의 특성에 맞게 구체화하여 지속적으로 제안해야 함.
- 특히 2026년 하반기 미국(G20)과 중국(APEC)이 각각 의장국을 맡아 의제가 협의체별로 갈리는 국면에서 포럼협의체 간 의제를 잇는 연결자 역할을 할 수 있다면 한국의 실질적 외교 자산이 될 수 있으므로 2027년 의장국(APEC 베트남·G20 영국·G7 미국)까지 내다본 설계가 필요함.

57) G7(2026. 5. 6.), “The Outcomes of the G7 Évian Summit,” “Macroeconomic imbalances” 부문, <https://www.elysee.fr/en/G7evian/all-actualities>(검색일: 2026. 7. 1.).

■ [APEC] 글로벌 협의체에서 한국의 입장을 구축해가는 시작점이자 지지기반으로 삼아 2025년 성과가 단년도로 끝나지 않도록 연계 고리를 확보해야 함.

- 2025년 의장국 성과(APEC AI 이니셔티브, 인구구조 변화 대응, 문화창조산업)가 단년도에 그치지 않고 2026년 이후에도 이어지도록 향후 성과문서에 논의의 연결고리를 마련해야 함.
- 주저우 성명이 이어받은 무역디지털화 정책 권고의 이행·구체화, 부속서 「혁신적·경쟁적·회복력 있는 서비스를 위한 APEC 로드맵」의 이행계획 수립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음.
- 통상 이슈의 경우, WTO 개혁(투자원활화 협정 편입 등)을 위한 정책 인큐베이터로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OECD·G7에서 다듬은 규범을 APEC으로 되가져와 개도 회원경제의 수용성을 높여 의제를 고도화하는 것으로 들 수 있음.
- 베트남이 APEC 의장국을 맡는 2027년을 염두에 두고, 실무 트랙에서도 사전에 지지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협의체별 활용] APEC에서 한국이 제안한 의제를 각 협의체의 기능에 맞는 실증·규범 논의로 발전시킨 후, 그 성과가 G20의 포괄적 논의로 이어지도록 연계함.

- [OECD·실증] OECD는 분석과 실증을 담당하므로 MAGIC 데이터베이스 등 현재 분석 인프라를 활용해 APEC에서 제안한 의제를 정책화하고 구체화하는 데 활용함.
 - 한국은 주요국의 정책 방향을 받아들이는 수요자에서 벗어나, 정책연구 어젠다를 선제적으로 제안하는 설계자로 역할을 바꿀 필요가 있음.
 - 특히 산업보조금·비시장관행 분석이 유럽 중심 시각에 치우치지 않고 한국·아시아의 공급망 구조를 반영 하도록 관련 지표·분석의 설계 단계부터 의견을 제시함.
- [G7·규범 형성] 한국은 초청국으로서 G7의 규범 형성을 주도하기는 어렵지만, 2026년 프랑스 에비앙 정상 회의에서 5개 파트너국(인도·케냐·한국·브라질·이집트) 중 하나로 참여한 계기를 활용해 G7 규범 논의에 대한 관여를 확대함.
 - 경제안보·핵심광물·AI 관련 규범의 형성 단계부터 한국과 아시아 공급망의 현실을 선제적으로 반영하고, G7 논의에 반영되지 못한 사안은 APEC 논의로 가져와 개도 회원경제까지 지지 기반을 넓힌 후 대안 의제로 발전시킴.
- [G20·수렴] 미국 의장국 체제에서 기후·개발·다자무역 의제의 축소로 발생한 공백을 고려하여, 미국도 수용할 수 있는 에너지·핵심광물·디지털과 AI 분야의 교집합 의제를 발굴함.
 - APEC·OECD 논의와 연계하여 미·중 양측과 선진·개도국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사안을 우선 제기함으로써, 대립 구도 속에서도 합의 가능한 접점을 확대함.
 - 나아가 영국이 의장국을 맡는 2027년과 트럼프 행정부 후반기의 통상환경을 내다보고, 2028년 한국의 G20 의장국 의제를 사전에 제안하고 지지 기반을 조성하는 장으로 G20을 활용함.

■ 국제협의체에서 한국이 의제를 설정하고 성과를 창출하는 기본 원칙은 글로벌 규범에 동참하면서도 포용적인 적용 방안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며, APEC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음.

- 한국은 규칙 기반 무역질서, 공정경쟁 복원, 경제적 강압 배격 등 OECD·G7이 강조하는 가치와 규범에 동참하되, 해당 규범이 신흥·개도국에 대한 보호주의나 기술 통제의 수단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발전 격차를 고려한 적용 방식도 함께 제안해야 함.
 - 이는 APEC 통상장관회의가 ‘일률적 조치 지양’을 명문화한 접근과 부합하며, 주요 협의체가 공유하는 가치를 지키면서도 신흥·개도국을 포용하는 한국의 차별화된 역할을 보여줌.
- WTO 체제가 약화될수록 다자협의체 간 순환 구조를 활용하여 통상 규범 형성 과정에서 한국의 발언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2026년 이후의 과제는 이러한 접근을 협의체 간 선순환 구조에 안착시키는 데 있음. **KIEP**

참고문헌

[국문자료]

- 이상훈, 김혁중, 김홍원, 박은빈. 2026. 「미·중 정상회담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세계경제포커스 26-4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천기. 2026. 「IEEPA 관세에 관한 미 연방대법원 판결의 주요 쟁점과 후속 관세 조치」. 오늘의 세계경제 26-0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영문자료]

- APEC. 2012. "APEC List of Environmental Goods." *Annex C to the 2012 APEC Leaders' Declaration*.
- _____. 2014. "APEC Connectivity Blueprint for 2015-2025." *Annex D to the 2014 APEC Leaders' Declaration*.
- _____. 2016. "APEC Services Competitiveness Roadmap (2016-2025)." *Annex B to the 2016 APEC Leaders' Declaration*.
- _____. 2017. "APEC Internet and Digital Economy Roadmap."
- _____. 2022. "Bangkok Goals on Bio-Circular-Green (BCG) Economy." *Annex to the 2022 APEC Leaders' Declaration*.
- _____. 2024. "Ichma Statement on A New Look at the 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 Agenda." *Annex to the 2024 APEC Leaders' Declaration*.
- _____. 2025. "APEC Artificial Intelligence (AI) Initiative (2026-2030)." *Annex to the 2025 APEC Leaders' Gyeongju Declaration*.
- _____. 2026. "2026 APEC Ministers Responsible for Trade Joint Statement."
- APEC Policy Support Unit. 2016. "APEC Supply Chain Connectivity Framework Action Plan 2010-2015: Final Assessment."
- _____. 2021. "Final Review of the APEC Supply Chain Connectivity Framework Action Plan 2017-2020 (SCFAP-II)."
- _____. 2025. "APEC Services Competitiveness Roadmap (ASCR) Final Review."
- _____. 2026. "APEC Supply Chain Connectivity Framework Action Plan 2022-2026 (SCFAP-III): Mid-term Review."
- _____. 2026. "APEC Regional Trends Analysis, May 2026."
- G7. 2023. "G7 Leaders' Statement on the Hiroshima AI Process."
- G20. 2023. "G20 Generic Framework for Mapping Global Value Chains." *Annex A to the G20 Trade and Investment Ministers' Meeting Outcome Document*.

- _____. 2023. “G20 High-Level Principles on Digitalisation of Trade Documents.” *Annex C to the G20 Trade and Investment Ministers' Meeting Outcome Document*.
- _____. 2025. “Environment and Climate Sustainability Working Group: G20 Technical Papers.”
- OECD. 2019. “Scoping the OECD AI Principles.” OECD Digital Economy Papers 291.
- _____. 2025. “The Market Implications of Industrial Subsidies.” OECD Trade Policy Papers 296.
- Oxford Insights. 2025. “Government AI Readiness Index 2025.”
- WTO. 2025. “World Trade Report 2025: Making Trade and AI Work Together to the Benefit of All.”

[온라인 자료]

- 「G20 재무장관, 중동사태 해결 강조…공동성명 채택은 불발」. 2026. 『연합뉴스』. (4월 17일).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60417120915x0t>(검색일: 2026. 7. 1.).
- G7. 2022. “G7 Statement on Climate Club.” <https://www.g7germany.de/resource/blob/974430/2057926/2a7cd9f10213a481924492942dd660a1/2022-06-28-g7-climate-club-data.pdf>(검색일: 2026. 7. 1.).
- _____. 2026. “G7 Évian Summit Outcomes.” <https://www.elysee.fr/en/G7evian/all-actualities>(검색일: 2026. 7. 1.).
- _____. 2026. “G7 Leaders' Declaration on Securing Supply Chains for Critical Minerals.” <https://www.elysee.fr/en/G7evian/2026/06/17/g7-leaders-declaration-on-securing-supply-chains-for-critical-minerals>(검색일: 2026. 7. 1.).
- _____. 2026. “G7 Trade Ministers' Communiqué.” Paris, May 5-6. <https://uk.diplomatie.gouv.fr/en/g7-trade-ministers-joint-communique>(검색일: 2026. 7. 1.).
- G20. 2019. “G20 Ministerial Statement on Trade and Digital Economy.” https://www.meti.go.jp/policy/trade_policy/G20/G20_DE_Outcome_Document.pdf(검색일: 2026. 7. 1.).
- _____. 2025. “Chair's Summary: G20 Trade and Investment Ministers' Meeting.” <https://g20.org/g20-media/chairs-summary-g20-trade-and-investment-ministers-meeting-gqeberha-eastern-cape-province-south-africa/>(검색일: 2026. 7. 1.).
- _____. 2026. “U.S. G20 Priorities.” <https://g20.org/g20-united-states/>(검색일: 2026. 7. 1.).
- OECD. 2025. “Hiroshima AI Process (HAIP) Reporting Framework.” <https://oecd.ai/en/g7-reporting-framework>(검색일: 2026. 7. 1.).
- _____. 2026. “Chair's Statement: Meeting of the OECD Council at Ministerial Level.” <https://www.oecd.org/content/dam/oecd/en/events/2026/06/mcm/2026-mcm-chair-statement.pdf>(검색일: 2026. 7. 1.).
- _____. 2026. “Inclusive Forum on Carbon Mitigation Approaches (IFCMA).” <https://www.oecd.org/en/about/programmes/inclusive-forum-on-carbon-mitigation-approaches.html>(검색일: 2026. 7. 1.).
- _____. 2026. “MAGIC Database of Industrial Subsidies.” <https://www.oecd.org/en/data/dashboards/magic-database-industrial-subsidies.html>(검색일: 2026. 7. 1.).